

국어 명사구와 조사구의 통사 구조에 대하여*

임 흥 빈**

1. 목적

본고는 임홍빈(1987나)를 반성하고 국어 명사구와 조사구의 통사 구조가 어떻게 설정될 수 있으며 그 정확한 범주와 분포는 어떻게 기술될 수 있는 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명사구란 체언을 핵(head, 혹은 표제)으로 하는 구성을 말하며, 조사구란 조사를 핵으로 하는 구성을 말한다.¹⁾ 활용의 문제를 내놓고는 국어 문법에서 이 문제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국어는 교착소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조사는 어미들과 더불어 교착 범주를 이루는 두 기둥의 하나이다. 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국어의 문장 구조 하나 정확하게 그려 볼 수 없는 것이다.

임홍빈(1987나)에서는 조사구나 격조사구 또는 보조사구와 같은 것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국어 명사구가 구절 규칙에 의하여 어떻게 기술될 수 있는가를 검토한 것으로, 조사구는 명사구의 외적 구조에 해당한다. 명

* 본고는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본과 교수

1) 명사구 또는 기타의 범주에 조사가 연결된 구성을 ‘조사구’라 부르기로 한다. 이를 세분하면 격조사가 연결된 구성은 격조사구(KP)가 되고, 보조사가 연결된 구성은 보조사구(HP)가 되고, 접속 조사가 연결된 구성은 접속 조사구(CNP)가 된다. 격조사구를 더 세분할 때는 주격 조사구(NKP), 속격/관형격 조사구(GKP), 목적격 조사구(OKP), 부사격 조사구(ADKP) 등과 같이 나누고, 부사격 조사를 더 나눌 때에는 치격, 조격, 출격, 달격, 공동격, 비교격, 자격격, 원인격, 변위격, 인용격 조사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여기에 인용격 조사는 보문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기로 한다.

사구의 외적 구조, 곧 조사구를 구절 규칙에 의하여 생성한 것은 조사구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복잡한 구조를 이룬다는 것을 중시한 것이다. 임홍빈(1987나)의 결함은 조사구가 독립적인 투사를 이루는 핵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적극화하지 않은 것이다. Gunji (1987)에서와 같이 ‘후치사구’를 설정하는 것은 핵의 대량 생략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었다.²⁾ 핵의 자유로운 생략이나 대량 생략은 다른 핵에 있어서는 그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하다’나 ‘이다’의 생략이 있으나 그것은 극히 부분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생략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격조사 생략은 조사 핵 논의에 여전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본고는 조사구 설정과 함께 생략 현상에 대해서도 대안적인 설명 원리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명사구와 조사구의 구조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후 김용하(1990), 윤종열(1990, 1992), 임동훈(1991) 등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용하(1990)은 임홍빈(1987나)의 엑스-바 이론에 대한 비판을 부당한 것으로 비판하고, 국어의 명사구는 바-하나를 최대 투사로 하는 엑스-바 도식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본고는 이 비판을 예리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윤종열(1990, 1992)에서는 보조사(delimiter)를 핵으로 하는 구성이 제안되었고, 임동훈(1991)에서는 격조사를 핵으로 하는 구조가 제안되었다. 이현우(1995)에서는 주로 명사구의 내적 구조에 초점을 맞춘 논의로 다양한 구성이 다루어져 주목된다. 임홍빈·장소원(1995)에서도 조사구가 설정되었다. 조사구를 결정사구(determiner phrase)로 설정한 논의가 있으나 이는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이다.

본고는 임홍빈·장소원(1995)에 제시된 조사구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엑스-바 이론의 적용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이에는 명사구의 성립 자체에 관한 근원적인 문제에서부터 보어의 선택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들이 잠재해 있다.

2) Gunji (1987)은 GPSG 모델에 입각하여 주어를 “PP [SUBJ],” 목적어를 “PP [OBJ]”와 같은 범주로 상정하였다. 우리에게 있어 주어나 목적어, 부사어나 관형어와 같은 성분 범주 또는 명사절이나 부사절 또는 관형절과 같은 절 범주 등은 원초적인 범주가 아니라 해석 범주이다. 이들은 교착소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Chomsky (1994)의 나상 구구조(Bare Phrase Structure) 이론에 의하면 구범주(句範疇, phrasal category)는 어휘 범주 자체가 투사된다. 나상 구구조 이론에서 종래와 같은 “명사구” 범주는 명목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사구의 존재는 훼손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결정사구(DP = Determiner Phrase)와 같은 것으로 변질될 수도 없는 것이다. 결정사구 가설은 임홍빈(1995)에서 그 부당성이 검토된 바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다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명사구 구조에 대하여 엑스-바 도식을 적용한다고 할 때, 명사구의 구조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명사구 구성의 다양성과 함께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필자로서 가능한 해결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명사구와 조사구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범주의 성격을 정의하고 그 목록을 확립하는 작업을 요구한다. 남윤진(1997)은 조사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연구의 성격을 떤 것이고, 정희정(1998)은 명사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연구의 성격을 떤 것이다. 본고에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 명사나 조사의 범위는 확정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

2. 엑스-바 이론에 대한 반성과 제안

임홍빈(1987나)는 엑스-바 이론의 설명력을 부정하는 입장에 선 것이었다. 엑스-바 이론이 아직도 선형적인 언어 이론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지금 반성의 재료가 되는 것은 임홍빈(1987나)가 엑스-바 이론이 개선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우선 그 기본적인 성격을 Pullum (1985 : 325-337)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보기로 한다.³⁾

3) Pullum (1985 : 325)에 의하면 이들 술어는 Komai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Pullum (1985)의 문맥은 다소 모호하다. “어휘성” 이하 다른 술어도 모두 Komai에서 온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획일적(uniform)”이란 말은 “uniform three level hypothesis”와 같은 용어 속에 이미 Jackendoff (1977)에 나타난다. “수의성”도

- (1) 가. 어휘성(lexicality) 조건 : 그 본질에 있어 엑스-바 도식의 기저는 [土명사], [土동사]와 같은 어휘 차질의 투사로 이루어진다.⁴⁾
- 나. 순차성(succession) 조건 : 핵의 바 수준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하나씩 작아진다.
- 다. 획일성(uniformity) 조건 : 모든 범주의 최대 바-층위는 동일하다.
- 라. 최대성(maximality) 조건 : 핵 외의 성분은 최대 투사이다.
- 마. 동심성(endocentricity) 조건 또는 중심성(centrality) 조건 : 모든 통사적 구성의 핵은 하나이다.⁵⁾
- 바. 수의성(optionality) 조건 : 핵 외의 성분은 수의적이다.

(1가)의 조건은 아직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명사(N), 동사(V), 형용사(A), 전치사(P)만으로 문법이 기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⁶⁾ (1가)는 거의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1바)도 그 적용력은 크게 약화된 것이다. (1바)로는 어휘 선택과 관련되는 필수적인 통사 성분에 대한 요구를 설명할 수 없다. (1나)-(1마)에도 원리적인 예외들이 있고, 범주 설정의 자의성이나 애매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 등위 접속 구성이나 관계절 구성에서 순차성 원리의 위배가 나타나는 것, 등위 접속 구성에서 동심성 원리에 대한 위배가 나타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다(Radford (1981) 참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이다

- (2) 가. 모든 어휘-형태 부류 범주가 투사를 가지는가?
- 나. 투사에 있어서 모든 어휘-형태 부류 범주가 투사의 동일한 출발점에 서는가?
- 다. 모든 범주에 대하여 중간 투사나 최대 투사의 바-수효는 동일한 것인가?
- 라. 모든 범주에 대하여 보충어는⁷⁾ 많아야 하나만 상정되는 것인가?

같다.

4) 이는 Chomsky (1976 : 308)에서의 관련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5) 앞으로는 이 명칭을 “동심성 조건”으로 부르기로 한다. “중심성”이란 말은 그 위치를 뜻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6) 주범주 외에 Pullum (1985 : 328)에서 들고 있는 부수 범주(minor categories)는 ADV, AGR, AUX, ART, Ctic, COMP, CONJ, COP, DEG, DET, INFL, M, NEG, Prt, Q, Tense, TOP 등과 같은 것이다.

(2가, 나)와 관련하여 다음을 보기로 한다.

- (3) 가. [아], 사람이 시원하다.
- 나. [철수 그리고 영희]가 그 일을 하였다.
- 다. [아주 다행히] 안내자가 우리를 마중 나왔다.
- 라. 영희가 [철수와 함께] 왔다.
- 마. [아주 새] 책이 나왔다.

(3가)의 ‘아’는 감탄사이다. 감탄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충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지정어를 가지지 않는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은 필지이다. 감탄사는 투사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탄사는 투사한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3나)의 괄호 부분은 명사구 등위 접속 구성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는 접속 부사이나, 여기서는 접속어로 보기로 한다. 접속어는 투사하는가? 그렇게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3다)의 괄호 부분은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는 구성을 보인 것이다. (3다)의 부사는 투사를 가지는가? ‘다행히’에 대하여 보충어나 지정어를 상정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투사를 이루는 것이 책에 대한 지정어나 보충어라면, (3다)의 ‘다행히’는 투사를 가질 수 없다. 이것은 (3라)의 ‘함께’가 보충어를 가지는 것과 대조된다. 보충어를 가지는 부사와 그렇지 못한 부사를 구별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약정의 성격을 띤다. (3마)의 괄호 부분은 관형사가 부사의 수식을 받는 구조를 보인 것이다. 관형사는 보충어나 지정어를 가지는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모든 어휘-형태 부류 범주가 투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2나)와 관련하여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투사에 있어서 모든 어휘-형태 부류 범주가 투사의 동일한 출발점에 서는가 하는 문제이다.

- (4) 가. [그]가 [그들]에게는 친절하다.
- 나. [그 사람]이 [저 사람들]에게는 친절하다.
- 다. [저기 있는 그]가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친절하다.
- 라. [새 그]가 그들에게는 친절하다.

7) ‘보충어’는 혼히 ‘보어’라고 하는 것이나, 여기서 ‘보충어’를 학교 문법의 ‘보어’와 구별하는 것이 좋다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서정목(1998) 참조.

마. *[새 철수]가 그것을 하였다.

바. *우리는 [새 셋]을 샀다.

(4가)의 ‘그’와 ‘우리’는 대명사이다. 체언을 N으로 정의한다면, 대명사도 N이 된다. 그러나 (4가)의 ‘그’나 ‘그들’은 (4나)와 같이 대치할 수 있다. (4나)의 팔호 친 부분을 명사구(NP)라고 한다면, (4가)의 ‘그’나 ‘그들’도 NP라고 해야 한다. 분포가 같다. 의미론적으로 볼 때, 대명사에 대해서는 사건 구조를 상정할 수 없다.⁸⁾ 사건 구조와 관련되는 어떠한 의미의 보충어나 지정어도 상정할 수 없다. 이는 대명사가 그 자체로 NP 범주를 형성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4다)와 달리 (4라)는 대명사가 관형사에 의한 수식을 허용하지 않음을 보인다.⁹⁾ 대명사에 대한 관형사형 전성 어미구에 의한 수식은 부가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¹⁰⁾

같은 문제가 고유 명사나 수사에서도 생긴다. (4마, 바)에서와 같이 고유 명사나 수사도 관형사 ‘새’에 의한 수식을 받지 못한다. (3마)의 ‘새 철수’가 성립한다면 그것은 보통 명사화한 ‘철수’에 대하여 쓰인 것이다. (3바)의 ‘새 셋’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 (5) 가. 모든 어휘-형태 범주가 투사되는 것은 아니다. 감탄사, 접속 부사 등 보충어나 지정어를 가지지 않는 부사 및 관형사는 투사를 가지지 않는다.
- 나. 모든 어휘-형태 범주가 투사의 동일한 출발점에 서는 것은 아니다. 대명사와 수사와 고유 명사는 그 자체로 NP 범주로 정의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건 구조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8) Grimshaw (1990)에서는 ‘어휘 개념 구조’를 상정하였으나, 여기서는 ‘사건 구조’를 중시하기로 한다. 사건 구조는 문제의 명사나 동사 개념과 관련하여 상정되는 사건의 구조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5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9) 이는 ‘새’와 같은 성상 관형사가 명사구의 내적 구조에서 비교적 낮은 층위에 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사실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65) 및 (71)과 관련된 예와 해석을 참조하기 바란다.

10) 여기서 ‘관형사형 전성 어미구’는 관형사절을 말한다. 관형사절의 통사적 지위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짧은 관형사절과 긴 관형사절의 차이에 주목할 것이다.

(2다, 라)와 관련하여 다음 예를 보기로 한다.

- (6) 가. 철수가 잔다.
- 나. 철수가 책을 읽는다.
- 다.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주었다.
- 라. 철수가 이 책을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6가)의 '자-'는 한 자리 서술어 즉 1가 동사이다. 이에도 보충어가 상정되는가? 분명치 않다. 엑스-바 이론은 이 점을 명백히 하지 않았다. 1가 동사에 대해서 중간 투사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렇다면 이 경우 바-투사는 어떻게 되는가? 잘 알려진 것이 없다.

(6나)의 논항은 둘이고 그 중의 하나가 보충어이다. 엑스-바 도식을 충족시키는 전형적인 예이다. 이에 대하여 중간 층위를 하나로 상정하는 것은 보충어의 수와 중간 층위의 수를 관련시키는 것이다. (6다)에는 보충어가 둘이다.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든 보충어의 수를 하나로 제한하려 한 것이 Larson (1988, 1990)이다. 임홍빈(1999)에서는 이 문제에 재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보충어의 수를 하나로만 한정하는 고정 관념에 얹매인 해석법이었다. (6라)의 논항은 넷이고, 보충어가 셋이다. 엑스-바 이론가들은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도 중간 투사를 하나로만 제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도달할 결론은 자명하다. 중간 투사 층위를 가변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 (7) 가변 중간 투사에 대한 약정
 - 가. 중간 투사는 가변적인 것으로 가정한다.
 - 나. 중간 투사는 보충어의 수에 비례한다.

동사를 중심으로 중간 투사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 (8) 동사의 중간 투사에 대한 정의
 - 가. 두 자리(2가) 동사 V는 그 보충어와 함께 중간 투사 범주 VB를 형성한다.¹¹⁾

나. 세 자리(3가) 이상의 동사 V는 그 제1 보충어와 함께 VB를 형성하고, VB는 다시 제2 보충어와 함께 VBB를 형성하며, VBB는 다시 제3 보충어와 함께 VBBB를 형성한다.

(8가)는 형용사 범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고, 명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명사에 대한 보충어의 문제는 뒤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형용사의 중간 투사에 대한 형식적인 정의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9) 형용사의 중간 투사에 대한 정의

두 자리(2가) 형용사 A는 그 보충어와 함께 중간 투사 범주 AB를 형성한다.¹²⁾ AB는 또 다른 보충어와 함께 ABB를 이룰 수 있다.

(6다)를 예로 들어 여기서 상정하고 있는 엑스-바 도식이 어떠한 형식의 것인가를 예시해 보기로 한다. 엑스-바 도식에 의한 문장 구조의 형성은 엄격히 어휘 내항 정보에 의존한다. 예시를 위하여 간단한 어휘 내항 표시를 다음과 같이 상정해 보기로 한다.

(10) 가. 먹- : <NKP(NP=[+Animal]), OKP(NP=[+Concrete Substance])>

나. 먹- : <NKP(NP=[+Animal]/[+Coin Machine]),
OKP(NP(N=[+Concrete Substance]/더위/마음/욕))/
NP(N=더위/마음/욕)>

(11) 가. 철수가 밥을 먹는다.

나. 철수가 집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
다. 공중전화가 동전을 먹었다.

(10가)는 (11가)의 논항 구조를 보인 것이다. ‘먹-’은 NKP(주격 조사구)와 OKP(목적격 조사구)를 논항으로 가진다.¹³⁾ 괄호 속의 자질 표시는 그

11) VB는 V'를 의미한다. 생성 문법은 ‘바(bar)’를 막대 기호나 프라임 기호로 나타내었으나, 효과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변별력에도 문제가 있었고, 표기에도 문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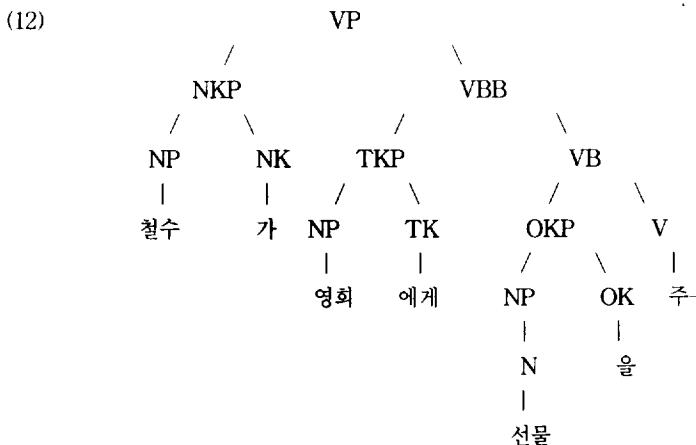
12) AB는 A'를 의미한다.

13) 우리 논의에 있어 의미역을 원초적인 개념으로 하는 논의는 지양된다. 의미역을 논

의미 선택 제약을 나타낸 것이다. (11나, 다)와 같은 예도 있으므로 내항 정보는 더 정밀해져야 한다. (10나)는 (10가)로 하여금 (11나, 다)의 예들을 포용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마음을 먹다, 더위를 먹다, 욕을 먹다’와 같은 관용구의 관련형은 어휘 내항에 직접 나열된다. 이들은 의미 자질 명세를 벗어나는 예들이고 달리 그 자질을 명시하기 어려운 예이다.¹⁴⁾ 목적어로는 NP가 그냥 쓰일 수도 있다. 목적격 조사 없이 관용구를 이루는 ‘더위/마음/욕’과 같은 명사가 명사구의 핵이 되는 경우이다.

(10가)와 같은 논항 구조에서 가장 오른쪽에 오는 논항이 제1 보충어이고, 그 다음 오른쪽에 오는 논항이 제2 보충어이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그 다음 보충어이다.

이제 (6다)의 구조를 VP 부분에만 주목하여 보기로 한다. 본 논의의 체계에서는 어말 어미나 선어말 어미도 독립적인 투사를 이루는 것이다.¹⁵⁾



(12)에는 명사구와 조사구에 대한 본고의 기본적인 생각이 반영되어 있

항화하는 Chomsky (1981)의 규준적 범주 선택과 같은 논의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14) ‘마음먹다, 욕먹다, 더위먹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은 별도의 어휘 항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15) 이에 대해서는 임홍빈(1997)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 (12)에서 ‘주-’는 목적격 조사구(OKP)를 가지고 VB가 되고, 다시 달격 조사구(TKP)를 가지고 VBB가 된다. VBB가 주격 조사구(NKP)를 가지고 VP가 된다. 모든 것이 자명하다. 보충어가 많아야 하나뿐이라는 가정을 할 필요가 없다. 임홍빈(1999)의 재분석 논의도 이 구조에 흡수된다. 보충어의 층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결속 이론적인 비대칭성이 포착될 수 있다.

‘지정어(SPEC)’는 ‘주어’나 ‘의미상의 주어’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지정어’의 성격을 명시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아무 성분이나 지정어로 설정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기로 한다.

(13) 투사와 지정어의 존재

- 가. 지정어는 주어나 의미상 주어에 해당하는 성분에 한정된다.
- 나. 모든 범주에 대하여 지정어를 상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다. 지정어는 투사를 폐쇄하나, 지정어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중간 투사만으로도 투사가 폐쇄되는 것으로 본다.
- 라. 투사가 폐쇄될 경우 그것을 최대 투사로 정의한다.

본고는 논항에 대해서도 종래와는 다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종래에는 많건 적건 논항은 의미역(θ -role)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상정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어휘 범주에 대해서만 대체로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며, 의미역의 목록이나 성격도 정밀하게 정의되지 못한 상태이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14) 가. 철수가 의뭉하게 군다.

- 나. 영희가 철수를 점잖게 본다.

(14가)의 ‘의문하게’는 ‘굴-’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다. (14나)의 ‘점잖게’도 ‘평가하다’를 뜻하는 ‘보-’의 성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다. ‘의문하게’나 ‘점잖게’가 의미역을 가지는가? 어떤 의미역이 ‘의문하게’나 ‘점잖게’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의문하게’나 ‘점잖게’를 Manner와 같은 의미역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14가, 나)와 같은 구성이 먼저 있고, 그 성분의 의미론적인 기능을 해석한 결과가 그렇게 성격지어질 수 있는 것에 지

나지 않는다. 조사가 독립적인 투사를 가진다고 할 때, 그 보충어를 NP라고 하였을 때, 그 NP의 의미역은 무엇이라 할 것인가?

또 여기서 제안하려고 하는 다른 사실의 하나는 모든 논항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논항에도 비중의 차이가 있어, 중요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비중이 큰 것을 ‘온논항’, 비중이 작은 것을 ‘반논항’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15) 가. 철수가 학교에 갔다.
 나. 철수가 집에서 학교에 갔다.
 다. 철수가 집에서 학교로 갔다.
 라. 가- : <NKP, (SKP), TKP(TK=에/로)>
- (16) 가. 동생이 집을 지었다.
 나. 동생이 나무로 집을 지었다.
 다. 짓- : <NKP, (IKP), OKP>

‘가’ 구성이라 하면, 우리는 흔히 (15가)와 같은 예를 연상한다. ‘학교에’와 같은 달격 논항(TKP)이 그만큼 비중이 높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15나, 다)의 ‘집에서’는 무엇인가? 논항이 되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다. 비중이 작기는 하지만, 논항의 자격은 가진다. 이것을 ‘반논항’으로 보기로 한다.¹⁶⁾ (15라)에서 출격 조사구(SKP)를 팔호 속에 표시한 것은, 그것이 반논항임을 나타낸 것이다. 그것은 원리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실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없는 것과 같다. 이러한 사정은 (16)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6가)는 그 자체로 온전한 문장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에는 (16나)에서와 같이 재료격 조사구가 나타날 수 있다. 반논항이다.

이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17) 반논항의 처리

반논항은 실현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나타나면 온논항으로

16) ‘반논항’은 Pustejovsky (1995)의 ‘당연 논항(default argument)’과 흡사하다. ‘당연 논항’은 논리적으로는 필수적이지만 통사적으로는 수의적인 논항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윤신 외(1999)가 참조된다. 우리의 반논항은 어느 경우에나 상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타나지 않으면 없는 것이다.

취급한다.

이러한 처리는 중간 투사를 범위를 축소하는 이점을 가진다.

3. 격과 격조사구의 설정과 구조 문제

격조사구란 명사구나 명사구 상당 범주에 격조사가 연결된 구성을 말하며, 보조사구란 명사구나 명사구 상당 구성 또는 부사나 어미구 뒤에 보조사가 연결된 구성을 말한다. 격조사가 격조사구를 이루고 보조사가 보조사구를 이룬다는 인식이 명확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정민(1973), 임영재(1985) 등의 후치사 논의가 비교적 이른 시기의 연구이며, 유동석(1993, 1995) 등도 같은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임동훈(1991)은 격조사 핵 논의를 본격화한 것이고, 최규수(1994)는 ‘토씨구’ 논의를 본격화한 것이다. 임홍빈·장소원(1995)에서도 격조사구와 보조사구를 독립적인 투사로 설정한 바 있다.

조사 문제에 대한 인식에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결정사구 가설(DP)’이다. 국어의 격조사가 영어의 결정사(determiner)에 비견되는 기능적 책임을 암시한 것은 안희돈(1988)이다. 그러나 그 부류는 상당히 이질적인 집합으로 되어 있다. 주격과 목적격을 구조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에 의하면, 격조사구라는 것이 나중에 만들어진다. 박정섭(1992)과 윤종열(1990, 1992)에서는 국어의 격표지를 영어의 관사와 평행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특이하다. 박정섭(1992)은 국어의 격조사에 영어의 관사와 같은 한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영어의 DP가 결정사를 핵으로 하는 구성이라는 것과 국어의 격조사가 그 자체의 투사를 가지는 범주라는 것은 문제의 차원이나 성격이 다른 것이다.

윤종열(1992 : 454)에서는 명사구에 일치소(AGR)를 상정하였다. Abney(1987)적인 구조이다. ‘적군의 도시의 파괴’와 같은 예에서 외적 논항은 명사(N)의 지정어 위치에서 기저 생성된 뒤에 격을 받기 위하여 D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 격을 받기 전에는 격조사구가 아니므로, 여기서도 격조사

구는 나중에 만들어진다. 홍용철(1994)에서도 DP 가설이 채택된다. 홍용철(1994)에서 격조사는 D에 위치한다. “격 부여자” X가 격을 부여할 때, 격은 음성적으로 D에서 실현된다고 한다. 음성적 실현을 구별한 것이 좀 달라진 것이나, 격을 배당받아야 DP가 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DP 형상이 주어지게 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최기용(1993)에서 보조사는 부사 뒤에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투사를 가질 수 없다. 그것은 핵도 지정어도 보충어도 아니다. 윤종열(1999)에서 제안된 것은 D-AgrP과 같은 것이다. 영어의 관사나 지시 형용사, 대명사 등을 모두 DP의 지정어로 보는 것이다. DP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관사 D가 DP 구성에서 핵의 지위를 잃은 것이다. 임홍빈(1995)에서는 결정사구 가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NP가 DP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DP 범주와 격조사구가 완전히 별개의 범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격조사구가 다른 요소에 의하여 격을 받아 생성되는 것이 아니란 것도 중요하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 (18) 가. 격조사구는 격조사의 투사 범주로, DP 가설과 무관하다.
- 나. 국어에서 주격이나 목적격과 같은 것이 “구조격”이라는 논의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 다. 주격이 이동에 의하여 배당되거나 그 배당을 위하여 이동이 촉발되는 것은 아니다.

(18가)는 격조사구를 DP라 하는 것은 DP 가설의 “결정사(determiner)”를 국어에 잘못 적용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정사에 포함되는 것은 영어에서 ‘a, an, the, this, that, my’ 등과 같은 관사, 지시 대명사, 소유 대명사와 같은 예이다. 이들은 절대로 후행 명사구의 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아니다. 국어의 격조사를 결정사의 하나로 보는 것은 문제의 성격 자체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¹⁷⁾

(18나)와 같이 주격이나 목적격을 “구조격(structural case)”으로 보아 형상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이 지배-결속 이론이다. 그러나 이는 순환론의 성

17) 영어에 대해서도 “결정사구”를 설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임홍빈(1995)을 참조하기 바란다.

격이 강하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한다.

- (19) 가. 철수가 책을 읽는다.
 나. [VP 철수가 [VB 책을 읽-]]-는-다.

(19나)는 (19가) 중 VP 부분의 범주와 구조를 간략하게 보인 것이다. (19나)에서 ‘책을’은 그 형상에 의하여 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결속 이론이다. V의 보충어 자리에 무조건 목적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격 부여는 V의 보충어가 어느 경우에나 단 하나이고, 그것이 어느 경우에나 모두 목적어가 된다고 할 때에만 가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격의 결정에는 반드시 어휘적 특성에 대한 참조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문법은 공허한 추상론에 떨어질 뿐이다.

(19나)를 (20나)와 비교할 때, 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 (20) 가. 철수가 서울에 산다.
 나. [VP 철수가 [VB 서울에 [V 살-]]]-_-다.

(20나)에서 ‘서울에’는 ‘살-’의 보충어이다. 그것에 목적격이 부여되는가? 그렇지 않다.¹⁸⁾ 동사가 그 보충어에 무조건 목적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격 논의는 타동사 부류의 보충어에 목적격이 배당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일반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보충어가 둘 이상 되는 경우, 그 보충어에 모두 목적격이 배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의 하나는 어휘격이라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논항의 격은 어느 것이나 어휘격의 성격을 띠게 마련인 것이다. 논항은 핵에 대하여 상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나)나 (20나)에서 보면, 주격은 모든 용언 구성에서 특정한 위치에 있는 논항에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과 같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가령 (19나), (20나)와 같은 예에서 ‘철수가’의 격은 ‘_-_-’의 지배를 받는 시제구의

18) ‘서울을 살다’와 같은 타동사적인 표현도 있으나, 이는 우리의 논점과는 다른 것이다.

지정어 위치에서 시제 요소에 의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보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적어도 국어에서는 지지될 수 없는 것이다. (18다)와 관련되는 논의이다. 다음을 보기로 하자.

- (21) 가. 내가요 그 사람을 언제 만났습니까요?
 나. 내가 그 사람을이야 때렸겠습니까?

(21가)의 '내가요' (21나)의 '그 사람을이야'를 보기로 하자. 주격이나 목적격이 구조격이라면, 심층 구조에는 '나요'나 '그 사람이야'와 같은 형식이 있어야 하고, 나중에 구조에 의하여 주격이나 목적격이 배당되고 그것이 '가'나 '를'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어휘적 구성 속으로 격조사가 끼어들어 가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반직관적이며, 이론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절차이다.

국어의 격에 관하여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기로 한다.

(22) 격과 격조사구의 성립

- 가. 격은 명사구(NP)가 격조사(K)를 가짐으로써 성립한다.
- 나. 격조사(K)를 가진 구성을 격조사구(KP)로 정의한다.
- 다. 격조사(K)는 명사구(NP)를 보충어로 선택한다.
- 라. 격조사구(KP)는 지정어(SPEC)를 가지지 않는다.

(22가)는 임홍빈·장소원(1995)에서도 부분적으로 제시한 것이나, 다시 다음과 같이 보기로 한다.

- (23) 가. 철수가 [이 책을] 읽었다.
 나. [OKP [NP 이 책] [OK을]]
 (24) 가. 철수가 [이 책과 저 책을] 읽었다.
 나. [OKP [NP[CJP[NP 이 책]][CJ과]] [NP저 책]] [OK을]]

(23나)는 (23가)의 '이 책을'의 구조를 보인 것이다. '을'은 목적격 조사(OK)로 '이 책'이란 명사구(NP) 뒤에 쓰여 격조사구(KP), 더 자세하는 목적격 조사구(OKP)를 이룬다. (23나)의 OKP에는 SPEC과 같은 것은 상정하지 않았다. 그 존재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24나)는 명사구 등위 접속 구성에 목적격 조사 ‘을’이 연결된 구조를 보인 것이다. 격조사가 명사 뒤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명사구 뒤에 쓰이는 것임을 명시해 준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한다.

(25) 가. 철수 책 읽는다.

- 나. [VP 철수 [VP 책 [VP [VB [V 읽-]]]-는-다.]]
- 다. 철수, 책 읽는다.
- 라. 철수, 책, 읽는다.
- 마. 철수가 책 3권을 읽었다.

(25가)의 ‘철수,’ ‘책’에는 격조사가 없다. (22가)의 원칙에 의하면, (25가)의 ‘철수’나 ‘책’은 격조사구가 아니다. 이를 격조사구로 보고 그 핵인 격조사가 생략되었다고 보아 온 것이 종래의 관찰법이다. 그러나 (22가)에 의하면 격조사의 생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25가)의 ‘철수’나 ‘책’은 단순 명사구로서, 어휘 내향 정보에 명시된 정규 논항이 되지 못한다. 어휘부의 논항 정보는 <NKP, OKP>와 같이 상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규 논항만이 투사를 이룬다고 할 때, (25가)의 ‘철수’와 ‘책’은 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25나)는 (25가)의 ‘철수’와 ‘책’을 VP 부가어의 일종으로 상정한 것이다. 그것은 흔히 주제가 놓이는 위치이다. 그것은 격조사를 가지지 않는 단순 명사구가 ‘무표적 주제’의 하나로 성격지어질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그 기능은 제시어와 아주 유사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와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25다)는 (25가)의 ‘철수’를 제시어로 상정해 본 것이다. (25가)와 (25다)의 차이는 거의 없어진다. (25라)는 ‘철수’와 ‘책’을 둘 다 제시어로 상정해 본 것이다. (25가)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이 점에서 (25마)의 ‘책 3권’의 ‘책’도 제시어의 일종으로 보기로 한다. 임홍빈(1987나)에서는 제시어 뒤에는 하강 억양이 오는 것으로 보아, ‘책 3권’의 ‘책’을 제시어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25가)의 ‘철수’나 ‘책’에 걸리는 억양과 명수사 구성의 명사에 걸리는 억양은 적어도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6) 가. 철수는 그 일을 하였다.

- 나. 철수는 자기가 그 일을 하였다.

- 다. 철수에게는 이것을 네가 동생에게 주어라.
 라. 철수에게는 이것을 네가 본인에게 주어라.

(26가)의 ‘철수는’은 학교 문법에서 흔히 주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규 논항일 수 없다. ‘하’의 논항 정보에 ‘철수는’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6다, 라)의 ‘철수에게는’도 그것 자체를 달격 조사구와 같이 말하는 것은 정확한 것이 되지 못한다. (26다, 라)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동생에게’나 ‘본인에게’와 같은 정규 논항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철수는’이나 ‘철수에게는’은 보조사구 혹은 격조사를 가진 보조사구로서 주제어의 기능을 하는 성분으로 보아야 한다.

- (27) 가. 오늘 어디에 갈 것인가의 문제
 나. 노래하며 춤추고가 그의 생활 신조이다.
 다. ‘오늘 어디에 갈 것인가’의
 라. ‘노래하며 춤주고’가
(28) 가. 인간에로의 길은 멀기만 하다.
 나. 편지가 철수에게로 갔다.
 다. 철수와의 만남은 유익하였다.
 라. 철수에게로의 편지가 영희에게 배달되었다.

(27)은 표면상 명사구가 아닌 성분 뒤에 격조사가 오는 예를 보인 것이며, (28)은 격조사의 겹침 현상을 보인 것이다. (27가, 나)는 (27다, 라)와 같이 의미론적인 따옴표를 가진 구성을 분석할 수 있다. 따옴표가 외현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다른 측면에서, 이는 어말 어미구가 명사구로 재분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8)과 같이 격조사가 겹치는 현상을 격조사구가 격조사구를 보충어로 선택하는 것으로 볼 경우, (22다)의 조건은 만족되지 않는다. 격조사구를 다시 명사구로 재분석 절차를 상정할 경우 (22다)의 조건은 유지된다. (27가, 나)와 같은 예가 있으므로, 재분석이 더 일반적인 설명력을 가진다. 다만, 재분석 절차를 생략하고 격조사구가 격조사구를 보충어로 선택하는 것을 편의상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 (29) 가. 우리는 그 사람만을 원한다.
 나. 우리 팀의 출발은 서울부터로 하였다.
 다. 책상마다에 꽃을 장식하였다.

(29가-다)의 밑줄 친 부분의 ‘만, 부터,마다’는 보조사이다. 보조사가 이루는 구성을 보조사구라고 할 경우, 위의 예들은 격조사가 보조사구를 보충 어로 선택하는 구조가 된다. 이는 (22다)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여기서도 보조사구를 명사구로 재분석하는 절차를 상정하기로 한다. 그것이 더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30) 격조사와 재분석

격조사는 명사구에 연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격조사가 다른 격조사 구나 어미구 또는 보조사구 뒤에 나타나는 것은 명사구가 아닌 성분이 명사구로 재분석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가정한다. 다만, 재분석 절차를 편의상 구조 표시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31) 가. 우리는 철수와 영희에게 선물을 보냈다.
 나. 우리는 철수에게와 영희에게 선물을 보냈다.
 다. 우리는 철수에게 그리고 영희에게 선물을 보냈다.
 라. 철수가 영희에게 그리고 영수가 숙희에게 선물을 보냈다.
 마. 책이며 책상이며 의자며 없는 것이 없다.
 바. 책에(다) 책상에(다) 의자에(다) 없는 것이 없다.
 사. 책이랑 책상이랑 의자랑을 다 가져왔다.
 아. 책이며 책상이며 의자며가 다 물에 젖었다.
- (32) 가. [TKP[NP[CJP[NP[철수][CJ와]] [NP영희]]][TK에게]]
 나. [TKP[CJP([NP][TKP[NP[철수][TK에게]]])][CJ와]][TKP[NP영희]]
 [TK에게]]]¹⁹⁾
 다. [TKP[TKP[NP[철수][TK에게]]] [CNJ 그리고]] [TKP[NP영희][TK에게]]]]

19) 팔호 속 NP는 재분석 과정에 해당하는 것인데, (30)의 ‘다만’항에 따라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인 것이다.

(32가)는 (31가)의 밑줄 친 부분의 구조를 보인 것이다. [철수와 영희]가 먼저 명사구로 묶이고 그것이 달격 조사(TK)를 가지고 달격 조사구(TKP)가 되는 구조이다. ‘철수’와 ‘영희’가 구조상 평행적인 위치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 외에 다른 문제는 없다. 이들을 대등한 위치를 가지는 대상으로 파악되는 것은 재구조화로 파악할 수 있다.²⁰⁾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31나-라)와 같은 구성이다. (32나)는 (31나)의 밑줄 친 부분을 달격 조사구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32나)의 맨 바깥쪽 괄호에는 격조사가 없다. 이를 Tkp로 파악하는 것은 (22가)를 어긴다. (31다)에서는 밑줄 친 부분이 실제로 하나의 성분인지 조차 의심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31라)의 밑줄 친 부분이 하나의 성분이 될 수 없는 것과 같다.²¹⁾

여기서 우리는 ‘가상 범주’를 상정하기로 한다. 구문 분석상 실제로 격조사구 또는 하나의 성분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 인식상 또는 재구조화에 의하여 하나의 성분이나 하나의 격 기능을 가진 성분처럼 인식되는 구성을 가상 범주로 설정한다. (31라)도 가상 범주로 설정할 수 있기는 하나, ‘주격-달격 조사구’라는 복합 범주를 설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²²⁾ (31마-사)의 밑줄 친 부분은 접속 조사구가 병렬된 구조를 보이는 것이다. 이들을 아우르는 상위 범주는 접속 조사구로 상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역시 가상 범주이다. 핵을 접속 조사구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후행문에 어떤 구조로 연결되는지는 다소 모호하다. (31사, 아)는 접속 조사구가 재분석을 통하여 목적격 조사구나 주격 조사구가 될 수 있다. (31마)에는 접속 조사구 뒤에 ‘하여/해서’의 보충이 가능하다. 다소 의심스럽기는 하나, (31바)

20) 이에 대해서는 이미 임홍빈·장소원(1995)에서 다룬 바 있다.

21) (31다)의 ‘철수에게 그리고 영희에게’ 전체 뒤에 ‘야/이야’가 쓰인 ‘[철수에게 그리고 영희에게]야’와 같은 구성이 가능할 것도 같고, ‘철수가 영희에게 그리고 영수가 숙희에게’ 전체 구성 뒤에 ‘야/이야’가 쓰인 ‘[철수가 영희에게 그리고 영수가 숙희에게]야’와 같은 구성도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는 가상 범주의 실제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의미상 관련 성분들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는 작용이 가해지고 그것에 보조사가 붙는 것이다.

22) (31다, 라)는 원칙적으로 간격화/공백화(gapping) 구성이다. 이들에 대한 분석은 선 행 문장에 빠진 요소를 보충하여 분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31다)의 ‘철수에게 그리고 영희에게’ 및 (31라)의 ‘철수가 영희에게 그리고 영수가 숙희에게’가 다시 하나의 성분으로 분석될 수 있다. 재구조화에 의한 가상 범주의 탄생이다. 주 21) 참조.

에도 ‘하여/해서’의 보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에(다)’ 접속 조사구 뒤에는 격조사가 거의 쓰일 수 없는 특이성이 있다. ‘에’의 의미가 어느 정도 살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33) 가. 그가 학생이 맞다.

나. 학생이 둘이 틀림없다.

다. 값이 백 원이 합당하다.

라. 그들이 오늘이 휴일이 우리가 사업이 낭패이다.

마. 그들은 형이 사장이고 동생이 사원으로 서로 우애있게 지낸다.²³⁾

(33가~다)는 김광해(1983)에서 계사 구성의 일종으로 본 것이다. 거기서 ‘맞다, 틀림없다’ 등은 계사류 동사이다. 임홍빈(1996)에서는 (33가)의 ‘그가’ (33나)의 ‘학생이’ 및 (33다)와 (33라)의 ‘값이, 그들이, 오늘이’ 등을 해당 명사구의 성분 주체로 보았다. 성분 주제와 설명 사이의 의미론이 계사 표현의 의미론을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임홍빈(1996)에서는 통사 분석을 위해서는 때로 빠진 성분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홍식은 개인적으로 (33마)의 밑줄 친 부분은 ‘사원’이란 명사 자체가 주어를 가지는 것이란 해석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위의 예들은 지정 형용사 ‘이-’를 보충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의미도 지정 형용사의 의미론을 충족시키고, 명제적인 의미의 작용도 분명하다. (33가)는 ‘그가 학생이라는 것이 맞다’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33가)와 같은 예의 구조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보충된 지정 형용사를 괄호 속에 ‘(이-)’와 같이 나타내기로 한다.

(33') 가. [그가 학생(이-)]이 맞다.

(33'가)의 ‘그가’는 지정 형용사 ‘이-’의 논항으로서의 주어이며, 괄호 밖의 ‘이’는 주격 조사로서의 ‘이’이다. 문제는 ‘이-’가 빠짐으로써 명사 뒤에 ‘이-’가 쓰여 절을 이끄는 듯이 보이게 된 것이다. (33나)에서는 ‘둘’을 ‘둘

23) 이 예는 작은 모임에서 이홍식 선생이 제시한 것이다.

(이-)’로 해석할 수 있고, (33다)에서는 ‘백 원’을 ‘백 원(이-)’로 해석할 수 있고, (33라)에서는 ‘휴일’을 ‘휴일(이-)’로 해석할 수 있으며, (33마)에서는 ‘사원’을 ‘사원(이-)’로 해석할 수 있다.

통사 분석에 빠진 요소의 보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31마)에서도 본 바 있고, (31라)에 대한 분석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다. ‘하-’ 관련 요소의 보충은 뒤에서 보기로 한다.

4. 보조사구와 접속 조사구의 설정과 구조 문제

보조사구(HP)는 ‘은/는, 도, 만, 부터, 조차, 까지, 마저’ 등과 같은 보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구성을 말한다.²⁴⁾ 여기서 보조사구라는 것은 윤종열(1990, 1992)에서의 한정사구(DelP= delimiter phrase)와 흡사하고, 최규수(1994)에서의 후치사구(PP)와도 흡사하다. 임홍빈·장소원(1995)에서도 ‘보조사구’는 설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는 보조사 부류의 범위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그 세부적인 구조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잠정적으로 보조사와 접속 조사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²⁵⁾

- (34) 가. 은/는, 도, 만, 부터, 조차, 까지, 마저, 마다, 만큼, 야말로/이야말로, 둘/인들, 나/이나, 나마/이나마, 라도/이라도, 이/가, 을/를.²⁶⁾
- 나. 요/이요, 야/이야, 들.²⁷⁾

24) 보조사 목록을 최소화한 것은 체완(1995)인 것으로 여겨진다. ‘까지, 나, 나마, 는, 다가, 도, 둘, 라도, 마다, 마저, 만, 서, 썩, 야, 야말로, 조차, 커녕’ 정도로 축소되고 있다. 보조사 목록을 최대화한 것은, 사전적인 처리의 예를 제외하면, 남윤진(1997)인 것으로 여겨진다.

25) 여기 보인 것 외에도 ‘먹어라’와 같은 명령의 ‘-여’ 뒤에 오는 ‘-라’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여라’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를 분리하면 ‘먹어라’는 ‘먹어요’와 대비되어, ‘라’와 ‘요’가 일부 기능적 등가성을 가진 요소로 정립될 수 있다.

26) ‘이/가, 을/를’은 흔히 보조사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에게 있어 ‘그간 손이 크다, 그를 머리를 때렸다’와 같은 예에서 밑줄 친 요소는 격조사가 아니다.

27) 종래 ‘둘’은 임홍빈(1989)에서 통사적 접사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를 여기에 포함시

- 다. 대로, 끄랑/을랑, 끄랑/일랑, 란/이란, 라고는/이라고는, 만치, 밖에, 커녕 /은커녕, 깨나, 따라.
- 라. 그려, 그래²⁸⁾, 다가, 마는, 뿐, 서²⁹⁾, 곤.³⁰⁾
- 마. 와/과, 하고, 하며, 나/이나, 랑/이랑, 며/이며, 애, 애다(가), (거나/이거나, 고/이고, 든/이든, 든지/이든지, 든가/이든가).

(34가-라)는 전형적인 보조사에서부터 예외적인 보조사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많은 목록을 보인 것이다. (34가)는 전형적인 보조사의 예를 보인 것이며, (34나)는 초보조사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분포가 광범한 예를 보인 것이다. (34다)는 그 분포가 다소 제약되는 예를 보인 것이며, (34라)는 그 분포가 크게 제약되는 예를 보인 것이다. (34마)는 접속 조사를 보인 것이다. ‘거나’ 이하를 팔호 속에 보인 것은 그것이 어미 구성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34)는 아직 잠정적인 목록일 뿐이다. 보조사의 총목록을 확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격조사와 보조사의 구분 문제도 있고, 조사와 접미사의 구분 문제도 있고, 보조사와 접속 조사의 구분 문제도 있다. 거기에 지정 형용사의 활용형을 보조사와 어떻게 구별해 내느냐 하는 문제도 그렇게 쉽지 않다. 동일한 요소의 쓰임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떤 쓰임을 보조사로 보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 그 외에 조사와 어미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중시하기로 한다. 보조사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후보 요소’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한다.

킨 것은 다음과 같은 고려에 의한다. 부사나 어말 어미구 또는 격조사 뒤에 연결되는 ‘들’은 통사적 접사 중에서도 특이한 면을 보이고, 또 통사적 접사를 인정하지 않는 문법에서는 이 ‘들’을 귀속시킬 마땅한 만한 범주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들’이 문법 범주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중시하여 투사하지 않거나 투사하더라도 투명 범주를 이루는 것으로 본다.

- 28) ‘갔다그려’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예를 말한다. ‘가네그려, 갑니다그려’ 등에 나타나는 ‘그려’와 성격이 다르지 않다. 대우법상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 29) ‘-아서/어서, -고서’ 및 ‘로서, 에께서, 깨서, 에서’ 뒤에 나타나는 ‘서’를 제외하면, ‘혼자서, 둘이서, 셋이서, 미리서, 일찍이서’ 등과 같은 예가 남는다. 모든 ‘서’를 각 형태 속에서 처리하기는 어렵다. 보조사 ‘서’도 있어야 한다.
- 30) ‘나곧 아니면 누가 가겠느냐?’와 같은 예의 ‘곧’이다.

(35) 보조사의 설정 기준

- 가. 후보 요소 뒤에 격조사의 쓰임이 비교적 자유스러운 것은 보조사에서 제외한다.
- 나. 후보 요소가 앞의 단어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은 보조사에서 제외 한다.
- 다. 필요한 요소를 보충하여 그 본래의 의미·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보조사에서 제외한다.
- 라. 어휘-의미론적인 제약이 강한 것은 보조사에서 제외한다.
- 마. 보조사는 동일 명사구에 대하여 한 조사구 구성에 두 번 이상 쓰이는 일이 제약된다.
- 바. 조사 구성 속에 쓰일 수 있는 것은 형태적 접사가 아니다.
- 사. 기원적으로 전형적인 보조사와 함께 이루어진 구성은 보조사에 포함시킨다.

이들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예만을 보기로 한다.

(36) 가. 아이들이/에게/과 그 일을 하였다.

- 나. 보름깨가 좋다/보름깨의 약속/보름깨로 하자/완자노리깨에 흰털이 있다.
- 다. 우리들끼리가 좋다/남자들끼리의 약속/싸움은 저희들끼리에서(로) 끝났다.
- 라. 이것 말고 그것을 주세요.
- 마. 그런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없다.
- 바. 배가 불러 가지고 식식거린다.
- 사. 3월이라 (하니) 삼짇날에 강남에서 제비가 온다.
- 아. 친척이라고 (해야) 원 가까운 사람이 있어야지?
- 자. 점심씩이나 사시려고요?
- 차. 그 친구 말마따나 우리는 외로운 나그네이다.
- 카. *철수깨나/*그 사람깨나/*우리깨나 그 일을 한다.
- 타. 나는 나대로 그 일을 한다.
- 파. ??서울에서나만큼만이나 나를 친절하게 대해 주었느냐?
- 하. ?아이들에게들이나들 잘해 주었느냐?
- 갸. 그가 호감을 보인 것은 나에게뿐이다/나뿐이다.

(36가)는 명사 뒤에 직접 쓰인 '들'을 보인 것이다.³¹⁾ '들' 뒤에는 모든 격조사가 쓰일 수 있다. 아무런 제약이 없다. 보조사가 연결되는 데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보조사가 이런 특징을 가지는 예는 없다. (35가)의 기준에 의하여 이러한 ‘들’은 보조사에서 제외된다. (36나)의 ‘께’는 어휘-의미론적 제약(위의 (35라) 참조)이 강한 것이기도 하지만, 격조사의 쓰임도 자유롭다. 따라서 (35가)에 의하여 보조사에서 제외된다. (36다)의 ‘끼리’도 ‘께’와 흡사하다. 어휘-의미론적 제약(위의 (35라) 참조)도 강하고 ‘끼리’의 의미론을 감안하면 격조사의 연결도 비교적 자유롭다. 따라서 ‘끼리’도 보조사에서 제외된다. ‘가량, 꿀, 어치, 짜리, 쯔, 째’ 등도 (35가)에 따라 보조사에서 제외된다.

(36라)의 ‘말고’, (36마)의 ‘치고’는 기원적으로 동사의 활용형이다. 그러나 이들이 동사의 활용형으로 완전히 살아 있는 것은 아니다. ‘치고’의 경우는 “그런 사람을 치고”와 같이 목적격 조사의 쓰임이 자연스럽지 않다. 그러나, ‘이것을 말고’는 괜찮고, ‘이것 말고서 저것을 주세요, 이것 말고야 저것이다’와 같이 다른 조사가 덧붙을 수 있다. 이 정도로도 충분히 보조사의 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것은 (35나)의 띄어쓰기 조건이다. 보조사를 띄어 쓰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들을 보조사라고 한다면, 보조사 중에서도 가장 예외적인 것이 된다. 띄어쓰기는 관행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말고’나 ‘치고’는 이에 예외를 이를 만큼 특이한 것이 아니다. ‘말고’나 ‘치고’는 아직 부사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할 만하다.

(36바)의 ‘-아/어 가지고’는 합해서 어미가 되는 것으로 본 견해도 있다 (김창섭(1981), 남윤진(1997) 참조). 만약, ‘-아/어 가지고’를 어미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미를 띄어 쓰는 유일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어 가지고’는 ‘-아/어는 가지고’와 같이 그 사이에 보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 어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36사)에는 팔호 속에 보인 바와 같이 ‘하니’ 정도의 보충이 가능하고, (36아)에는 ‘해야’ 정도의 보충이 가능하다. 그 의미론적인 관련도 이들 삽입 요소에 의하여 충분히 포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라, 이라고’

31) 이를 여기서는 형태 접사로 본다. ‘이들, 그들, 저들’의 ‘들’도 같다. (34나)와의 ‘들’과는 구별한다.

를 보조사나 주제 표지의 보조사로 보려고 하는 것은 문제의 요소를 특수한 것으로만 파악한 것이다.

(36자)의 ‘씩’, (36차)의 ‘마따나’는 어휘-의미적 제약이 강한 것이다. ‘씩’은 수량 표현 뒤에 쓰이는 것이 전형적인 것이다. ‘둘씩, 두 사람씩, 두 장씩, 여러 명씩’ 등과 같은 쓰임이다. 이러한 예는 배분적인 의미를 가진다. (36자)의 ‘씩’이 이러한 배분적인 의미와 관련을 가지는지 확실치 않다. 뒤에는 ‘씩이나’와 같이 ‘이나’로 고정되어 있고, 앞에 오는 말도 극히 제한된다. 표준적인 국어라고도 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35라)에 의하여 보조사에서 제외된다. ‘마따나’도 대체로 ‘말, 말씀’에 한정된 쓰임을 보인다.³²⁾ 이에도 (35라)가 적용된다.

(36카)의 ‘깨나’도 어휘-의미론적인 제약을 강하게 받는다. 고유 명사, 대명사 뒤에 쓰이지 않고, 특정 지시 표현 뒤에 쓰이지 않는다. 이 정도 제약이면 보조사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깨나’의 ‘나’는 그 기원을 보조사 ‘나/이나’에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깨나’ 뒤에 격조사의 쓰임이 거의 완전히 제약되는 것은 이러한 특징의 반영으로 여겨진다. ‘나/이나’가 보조사이므로, (35사)에 의하여 ‘깨나’는 보조사에 포함된다. (34가)에 ‘라도/이라도’가 포함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고, (34다)에 ‘라고는/이라고는’과 같은 형식이 포함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며, ‘란/이란’이 포함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란/이란’이 ‘라고 하는 것은’의 축약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바로 이 때문에 보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채완(1995)이나, 우리로서는 그 형성에 ‘은/는’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에 포함될 자격을 가진다. ‘란/이란’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아름답단’이 되지 않는 것에서 그 특이성을 볼 수 있다. ‘ㄹ랑/을랑’이 ‘으란’의 후대형이고 그것이 ‘은/는’을 가진 것이라면, 이에도 (35사)를 적용할 수 있다.

(36타)의 ‘대로’는 ‘있는 대로’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뒤에 쓰일 때는 의존 명사로 분류되고, 명사구 뒤에 직접 쓰일 때는 조사로 분류되는

32) 남윤진(1997:137)에서는 ‘마따나’가 접미사라고 할 경우, ‘말마따나’는 부사가 되는데, ‘어떤 사내의 말마따나’에서는 관형어가 부사를 수식하는 구성이 되기 때문에, 조사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마따나’를 통사적 접사로 보면 이러한 문제는 없어진다.

것이다. 그러나 ‘대로’가 격조사인가 보조사인가는 그렇게 선명하지 않다. ‘그것대로가 좋다/그것은 그것대로에 특징이 있다’와 같은 경우는 뒤에 격조사를 가질 수 있고, ‘그것대로만/그것대로는/그것대로도’ 등과 같이 전형적인 보조사가 비교적 자유롭게 붙는다. 분포로는 ‘부터, 조차, 까지’ 등과 같은 보조사에 가깝다. 오히려 ‘부터, 조차, 까지, 마저’ 등과의 결합이 제약된다. ‘대로’가 부사격 조사라면, ‘에서부터, 에게조차, 에까지’ 등이 보이는 바와 같이 ‘부터, 조차, 까지, 마저’와의 결합이 자유로워야 한다. ‘대로’는 (36타)의 ‘나는 나대로’와 같이 선행 명사구와 함께, 통사적으로 그 앞에 다시 보조사구를 요구하는 특이성을 가진다. (34다)에서는 일반적인 취급법에 따라 ‘대로’를 보조사로 분류하였다. (36파)는 동일 명사구에 보조사가 두 번 쓰인 것을 보인 것이다. 다른 보조사의 경우는 이렇게 겹치는 것을 상정조차 해 보기 어렵다. (36파, 하)는 가능한 결합을 상정해 본 것이다. (36파)는 극히 의심스럽고 (36하)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들’이 보조사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예임에 틀림없다.

(36가)는 ‘뿐’이 접미사가 아니라 보조사적인 존재임을 보인 것이다. 형태 접사가 격조사 뒤에 쓰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통사적인 접사일 가능성은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들’을 통사적 접사라고 한다면, ‘들’과 ‘뿐’이 이에 속할 가능성이 많다.

보조사 문제의 암초와 같은 문제는 지정 형용사의 활용형 문제이다. ‘거나/이거나, 나/아니, 든/이든, 든지/이든지, 든가/이든가, 라도/이라도, 라면/이라면, ㄴ-들/인들, ㄴ-지/인지, ㄴ-가/인가’ 등이 문자 그대로 ‘이-’의 활용형인지 아니면 ‘이-’의 활용형이 보조사화한 것인지, 접속 조사화한 것인지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이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전제하기로 한다. 그동안 이 문제를 다른 논의들에 일반적으로 전제된 것도 대체로는 이와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 (37) 가. 문제의 형식이 가지는 의미론이 어미 형식의 일반적인 의미론에 포함되는 것이 아닐 때, 그것은 단순한 활용형이라 보기 어렵다.
- 나. 문제의 형식이 가지는 분포가 어미 형식의 정상적인 분포에 포함되는 것이 아닐 때, 그것은 단순한 활용형이라 보기 어렵다.
- 다. 문제의 형식 속에 선어말 어미가 쓰이는 양상이 제약되거나 자연스럽지

못할 때, 그것을 단순한 활용형이라 보기 어렵다.

- 라. 문제의 형식에 대하여 뚜렷한 주어를 상정하기 어려울 때, 그것은 단순한 활용형이라 보기 어렵다.

이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38) 가. 책이나/책이라도/책이나마 읽자.

나. 그 사람이 책인들 읽겠느냐?

다. *책이거나/책이고/책이든/책이든지/책이든가/책이며 읽자.

라. 소설이거나 잡지이거나/소설이고 잡지이고/²소설이며 잡지며 읽자.

마. 무슨 책이거나/책이고/책이든지/책이든가/³책이며 읽어라.

- (39) 가. 일을 잘이나/이라도/이나마 하였으면!

나. 일을 잘인들 하겠느냐?

다. *일을 잘이고/잘이거나/잘이든/잘이든지/잘이든가/잘이며 하였으면!

(38가-다)는 ‘이-’ 활용형³³⁾ 구성이 단독으로 쓰인 것이다. (38가, 나) 정도가 이상을 가지지 않을 뿐 (38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이나, 라도/이라도, 나마/이나마, 냐/들/인들’이 다른 것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다른 형식은 특정 명사구(자유 선택의 의미가 아닌 명사구) 뒤에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38라)와 같이 중첩 구성을 이루는 것이 본래적인 의미 기능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접속 구식이다. (38마)는 자유 선택 구식의 경우에는 단독 쓰임이 가능하다. ‘며/이며’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것은 (38라)에서도 다소 이상을 보이던 것이다. 다른 예들은 자유 선택의 의미를 가진다. 자유 선택은 여럿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의미이며, 중첩 구식과 성격을 같이한다. ‘며/이며’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그 의미론과 관련된다. ‘며/이며’의 의미 기능은 아우름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39)는 부사 뒤에 쓰임을 본 것이다. (39가, 나)만이 성립한다. (39다)에서와 같이 다른 형식은 부사 뒤에 쓰일 수 없다. 위에서는 예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결 어미구 뒤의 쓰임도 그 결과는 (39)와 같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지정 형용사 ‘이-’ 활용형이라 할 수 있는 형식 가

33) 편의상 ‘나/이나’를 ‘이-’의 활용형으로 치친다. 그 성격이 다르다는 논의이므로, ‘이나’가 ‘이-’의 활용형이 아니라도 본 논의가 혼란되는 것은 아니다.

운데 보조사 기능을 획득한 것은 ‘ㄴ들/인들, 나/이나, 라도/이라도, 나마/이나마’ 정도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37가, 나)의 기준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다. ‘나/이나, 나마/이나마’는 그 의미론이 어미의 의미론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며, 분포도 일반 어미의 분포와는 다르다. 정상적인 연결 어미구의 분포는 후행절 앞에 위치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후행절의 한 성분처럼 행동한다. 이는 주어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라도/이라도’는 그 형성에 이미 보조사 ‘도’를 가진 것이므로, (35사)의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40) 가. 소설이나 잡지나에/소설에나 잡지에나 그런 것이 있다.
 나. 소설이며 잡지이며에/소설이며 잡지에며 그런 것이 있다.³⁴⁾
 다. 소설이고 잡지이고에/소설이고 잡지에이고 그런 것이 있다.
- (41) 가. *그 사람이 가나 오나에 문제가 달려 있다.(내포된 의문이 아님)
 나. ”그 사람이 가며 오며에 문제가 달려 있다.
 다. 그 사람이 가고 오고/가거나 오거나에 문제가 달려 있다.

(40가, 나)는 ‘나/이나, 며/이며’가 명사구 중첩 구성을 뿐만 아니라 격조사구 중첩 구성을 쓸 수 있음을 보인다. 그것은 용언의 정격 어미로서의 기능이 아니다. 동사에 대한 (41가, 나)와 같은 쓰임은 성립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 이접의 ‘나/이나’는 이미 확실히 접속 조사로서의 특이성을 획득한 것이다. 그러나 여타의 구성은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다. 나열의 ‘며/이며’도 아직은 어느 정도 어미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다. (40다)도 (41다)와 상당한 정도까지 평행성을 유지한다. 다른 예를 더 보기로 한다.

- (42) 가. 거기에는 소설이든 잡지든/소설이고 잡지고 있다.
 나. 거기에는 소설이든 잡지든/소설이고 잡지고 어느 것이 있다.
 다. 거기에는 소설이든 잡지든/소설이고 잡지고 간에 어느 것이 있다.
 라. 거기에는 소설이든 잡지든이/소설이고 잡지고가 있다.
 마. 거기에는 소설이든 잡지가/소설이고 잡지가 있다.

위에서 용언 구성을 다른 것은 (42마)이다. 용언으로서는 (42마)와 같은

34) ‘소설에이며 잡지에이며’와 같은 구성을 다소 수용성이 떨어진다.

구성을 이를 수 없다. 이러한 특성을 강조할 경우, ‘이고, 이며, 이든, 이거나, 이든, 이든지, 이든가’ 등을 모두 접속 조사로 취급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문법적 처리의 한 가능성으로 보고자 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의 특이성도 함께 고려된다.

- (43) 가. *소설이었고 잡지이었고 다 읽었다.
 나. ”소설이었거나 잡지이었거나 다 읽었다.
 다. 철수는 (그의 눈에 뜨인 것이) 소설이었거나 잡지이었거나 다 읽었다.

시제를 가질 경우 (43가)와 같이 단순 중첩 구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43나)도 나열 구성으로보다는 주어를 안 갖춘 문장으로 이해된다. 나열 구성이 다소 특이함을 말해 준다. 이러한 특이성은 어미 구성과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다, 이지, 이라, 이네, 이오’ 등 다른 어미 형식은 이러한 구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도 고려될 수 있다.³⁵⁾

다소 엄격하게는 ‘고/이고, 며/이며, 거나/이거나, 든/이든, 든지/이든지, 든가/이든가’ 등을 원칙적으로 용언의 어미구 형성 요소로 보고 ‘이-’형 중에서는 ‘나/이나’만을 접속 조사화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 경우, (42마)는 (42라)에서와 같이 되풀이되는 요소를 보충하여 해석한다. (43가, 나)적인 특수성은 단순 나열 구성이 가지는 특수성이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처리를 원칙적인 것으로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상적인 주어를 인정해야 하고, 시제에 대한 제약과 같은 것이 성립하는 특수 구성이라 해야 한다. 원리적인 설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구성의 특수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 전형적인 보조사가 이루는 구성을 보기로 한다. 여기서 전형적인 보조사는 그 분포를 주심으로 다음과 같은 세 부류로 나누기로 한다.

- (44) 가. 앞보조사(BH) : 만, 부터, 조차, 까지, 마저, 마다, 만큼, 나마/이나마.
 나. 가운데 보조사(MH) : 은/는, 도, 나/이나, 라도/이라도, 야말로/이야말로,

35) ‘책이다 소설이다 다 읽었다’와 같은 예를 혹 성립한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책이네 소설이네 다 내왔다’도 같은 예이다. 성립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인용 형식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ㄴ들/인들, 이/가, 을/를.

다. 뒤보조사(PH) : 요/이요, 야/이야, 들.

보조사구의 형성과 분포는 위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되었다. 전반적인 것을 다시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 (45) 가. 보조사구는 보조사를 핵으로 하는 구성을 말한다.
- 나. 보조사구는 지정어를 가지지 않는다.
- 다. 보조사의 보충어가 되는 것은 명사구, 격조사구, 보조사구, 부사(구), 연결 어미구 (혹은 종결 어미구)이다.
- 라. 앞보조사(BH)는 가운데보조사(MH) 앞에 오고, 이를 뒤에 뒤보조사(PH)가 오는 것이 일반적인 분포이다.
- 마. 격조사가 보조사 뒤에 오는 것은 재분석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본다(위의 (30) 참조).
- 바. 전형적인 보조사구는 비정규 논항의 성격을 가지므로, 어휘 핵의 논항 위치에 올 수 없다. 다만, '들' 구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본고의 기본 입장에 비추어, (45가, 나)는 자명하다.

(45다)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재분석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분포의 문제이다. 앞의 것은 보조사의 분포를 (45다)와 같이 기술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45다)의 구성이 모두 명사구로 재분석된 뒤에 보조사가 오는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의 성격을 띤다. 어느 쪽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원리적으로는 재분석이 강력한 기제를 제공한다. 다만, 격조사가 자유롭게 (45다)와 같은 분포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이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이 (45다)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문제는 (45다)에 괄호 속에 보인 종결 어미와 관련된다. (34라)의 '그려, 그래, 마는' 등은 특정한 종결 어미구를 보충어로 선택한다. 보조사로서는 예외적이다. 이들은 일반적인 분포에 포함되지 않는다.

(45라)는 보조사 사이의 분포를 단순화한 것이다. 채영숙 외(1991)에 수집된 1908개의 조사 중 대체로 가장 긴 연결체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ADK는 부사격 조사를 말한다. '에서, 에게서, 한테서'는 하나의 격조사로 보고, '에게로'는 두 격조사의 겹침으로 본다.

- (46) 가. ADK-BH-BH-PH : 에게부터만이야말로, 에서부터만이야말로
 나. ADK-BH-BH-MH : 에게서부터조차라도, 에게서까지조차라도, 한테서
 까지조차라도, 한테서부터조차라도, 에게서부터조차라도,
 다. ADK-BH-ADK-BH-MH : 에게까지로마저라도, 한테까지로마저라도.
 라. ADK-ADK-BH-BH-MH : 에게로까지조차도, 한테로까지조차라도.
 마. ADK-BH-BH-MH-PH : 에게서까지밖에는야, 한테서까지밖에는야.
 바. ADK-ADK-BH-BH-MH-PH : 한테로까지밖에는야.
 사. ADK-ADK-BH-BH-MH-PH : 에게로까지밖에는야.
 애. ADK-BH-ADK-BH-MH-PH : 에게까지로밖에는야, 한테까지로밖에
 는야.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일반화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47) 조사 연결체에 대한 일반화

- 가. 국어의 긴 조사 연결체는, 격조사(KP), 특히 부사격 조사(ADK)가 앞
 에 오고 그 뒤에 앞보조사(BH)-가운데보조사(MH)-뒤보조사가 오는
 구성이다.
 나. 같은 유형의 보조사가 겹치는 것은 앞보조사(BH)뿐이며, 가운데보조사
 (MH)와 뒤보조사(PH)는 겹치는 일이 없다.
 다. 보조사 구성 가운데 끼일 수 있는 격조사는 ‘로’뿐이다. ‘로’ 앞에 오는
 보조사 구성은 명사구로 재분석되는 것으로 보면, 그 유형은 (47가)에
 포함된다.
 라. 앞보조사의 겹침은 ‘부터까지, 부터조차’와 같은 구성이 흔히 나타나며,
 ‘까지부터, 조차부터’와 같은 연결은 나타나지 않는다. ‘밖에’도 ‘부터,
 까지, 조차’ 뒤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그들 앞에는 나타나지 않는
 다.

(45바)는 (26)에서 일부 살펴본 것이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48) 가. 어른들이 아이에게들 선물을들 많이들 주었다.
 나. 사장이 사원에게는 부인에게 선물을 주었다.
 다. ??사장이 사원에게들 부인에게 선물을 주었다.

(48가)의 밑줄 친 ‘들’을 보조사적인 것으로 보아 비정규 논항이라 하면,
 ‘아이에게들, 선물을들’이 모두 VP 밖에서 부가 구조를 이루게 된다. 그러

나 ‘들’은 통사 구조에 변화를 초래하는 요소가 아니다. ‘들’ 연결구를 무조건 VP 밖에 상정하는 것은 논항 구조를 불필요하게 공허한 것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45바)의 ‘다만’ 항은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48나)와 달리 (48다)가 부자연스러운 것이 이에 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다.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은 (48다)도 다소 성립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48다)가 (48나)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중시하기로 한다. 무의식적으로 ‘는’과 같은 요소에 의한 유추가 행해질 수 있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한다.

- (49) 가. 영수는 철수도 영희도 만났다.
 나. [”]영수는 철수도 영희도야 만났다.

(49가)의 ‘철수도 영희도’ 구성은 보조사 구성인지 명사구 접속 구성인지 아주 모호하다. ‘도’가 접속 조사로 등록된 일은 드물다.³⁶⁾ ‘철수도’와 ‘영희도’는 분명 보조사구이다. 이들이 명사구 접속 구성을 이루는 것이라면 (49나)가 자연스럽게 성립해야 한다. 그러나 (49나)는 적어도 자연스럽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49가)의 ‘철수도 영희도’ 구성을 가장 범주로 정의하기로 한다. 이 범주는 엄격히 보조사를 핵으로 하는 정격 구성은 아니나, 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질 수 있는 범주이다.³⁷⁾

다시 다음을 보자.

- (50) 가. 철수며 영희며 모두가 건강하다.
 나. 철수며 영희며 하여 모두가 건강하다.
 다. 철수며 영희 모두가 건강하다.

(50가)의 ‘철수며 영희며’ 구성이 명사구 접속 구성이라면, (50가)는 (50다)와 같은 제시어 구성이라 할 수 있다.³⁸⁾ (50나)는 이들 구성 뒤에 ‘하여’

36) 이를 명사구 접속 구성으로 본 것은 이현우(1993)이다.

37) ‘나/이나’가 ‘철수나 영희나 그 곳에 가야 한다’와 같이 쓰일 때는 접속 조사인 것으로 본다. ‘밥이나 먹자’라고 할 때에는 알잖는 뜻이 있으나, 전자에서는 그런 뜻이 없이 단순히 이접의 기능을 유지한다. ‘철수나 영희나가 그 곳에 가야지’와 같은 구성도 잘 성립한다.

가 쓰일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며/이며’에 의한 나열 구성이 단순한 명사구 접속 구성은 아님을 말해 준다. ‘며/이며’의 본래적인 기능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중시할 경우 (50가, 다)에 대해서는 두 가지 구조의 설정이 가능하다. 하나는 명사구 접속의 제시어 구성이며, 다른 하나는 연결 어미구에 의한 나열 구성이다. (50나)에 대해서는 후자의 구조만 가능하다. (50다)에 대한 연결 어미구 해석은 ‘며/이며’를 보충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이고, 거나/이거나, 든/이든, 든지/이든지, 든가/이든가’ 등에 의한 구성 일반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51) 가. 방이 깨끗은 하다.
 나. 어린 것이 참 착도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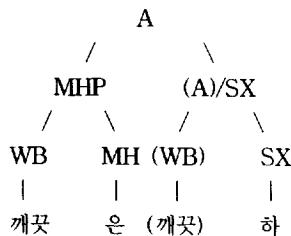
(51가, 나)의 밑줄친 부분은 임홍빈(1979)에서 어근 분리로 본 것이다. (51가)에서 ‘깨끗’은 어기(WB)이고, ‘하다’의 ‘하’는 접미사이다. ‘깨끗하다’의 어기가 ‘은/는’에 의하여 분리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은/는’은 어디에 어떻게 상정되어야 하는가? ‘깨끗하기는 하다’와 같은 구성에서 ‘-하기’를 삭제하여 ‘깨끗은 하다’를 유도하기는 어렵다. 의미는 유사하나, 생산성에도 문제가 있고 ‘하다’의 성격에도 문제가 있다.³⁹⁾ 유동석(1993 : 31-32)에서는 ‘깨끗 안 하다’와 같은 예를 중심으로 ‘깨끗하-’의 ‘하’가 다시 동사(V)로 재분석되고 거기에 이동이 적용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제안하려는 것은 이 경우에도 보조사 구성을 비정규 논항으로 보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다. 해석을 위하여 어기 부분을 접미사 앞에 보충하는 방법이다. (51가)의 해당 부분을 나무그림으로 그려 보이면 다음과 같다.⁴⁰⁾ (51나)의 경우도 같다.

38) 이에 대해서는 (25마)에 대한 해석을 참조하기 바란다.

39) 생산성의 문제라는 것은 ‘변하다’와 같은 예가 “변은 하다”는 안 되나 ‘변하기는 한 다’는 되는 것을 말한다. 후자의 경우 ‘하다’는 접미사가 아니라 온전한 용언이 된다.

40) (52)에서 A는 형용사, WB는 어기, SX는 접미사, MHe는 가운데보조사, MHP는 가운데보조사구를 말한다.

(52)



(52)에서 팔호 속에 넣은 ‘깨끗’은 보충된 요소로서의 어기이다. 그 범주 어기도 팔호 속에 넣었다. 보충에 의하여 만들어진 범주임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보충된 어기 ‘깨끗’과 접미사 ‘하’가 이루는 A 범주도 실제 주어진 범주는 아니므로 팔호 속에 표시하였다. 해석이 행해지기 전의 구조는 팔호 속에 표시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얻어진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53) 가. 사람은 고사하고 개미 한 마리 없다.
 나. 밥은 물론 떡도 먹었다.
 다. 밥은 물론이고/물론이며 떡도 먹었다.
 라. ‘밥이 물론이고/물론이며 떡도 먹었다.
 마. 사람은커녕 개미 한 마리 없다.

(53가)의 ‘고사하고’는 부사로서 반드시 ‘은/는’-보조사구를 보충어로 선택한다. (53나)도 (53가)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53나)의 ‘물론’은 특이하게 (53다)와 같이 ‘이고/이며’와 같은 활용형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고 (53다)에서 ‘밥은’을 지정 형용사 ‘이-’의 주어로 보기는 어렵다. (53라)와 같이 ‘밥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53나, 다)에서 ‘밥은’은 단지 ‘물론’의 보충어이고, ‘이고/이며’는 ‘밥은 물론’을 인용적 단위로 묶는 효과를 가지고 그 전체에 결합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볼 때에 한하여 (53나)는 (53가)와 같은 구조를 가진 것이 된다. ‘물론’이 부사로서 ‘밥은’을 보충어로 가지는 구조이다. (53마)의 ‘은커녕’도 기원적으로는 이 같은 구조였을 것이다. 현재는 보조사구를 이루는 요소이다.

5. 명사구의 구조 문제

명사구는 명사를 핵으로 하는 구성을 말한다. 격조사와 보조사가 독립적인 투사를 가짐으로써 명사구는 핵으로서의 명사와 그 앞에 오는 성분들만으로 한정된다. 명사구의 구조에 관한 문제는 위에서도 많은 부분 다루어졌고, 임홍빈(1987나)에서도 다루어졌다. 여기서는 몇 가지 원리적인 문제와 종래에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구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명사구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중요성을 띤다.

- (54) 가. 명사구에도 논항의 설정이 가능한가?
- 나. 명사구에도 보충어와 지정어의 설정이 가능한가?
- 다. 명사구에서 바-층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 라. 명사구의 부가어는 어떻게 되는가?

위의 (5나)에서 우리는 대명사, 수사, 고유 명사는 그 자체로 NP 범주가 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에 대해서는 사건 구조를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역으로 사건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명사는 보충어나 지정어를 가짐을 의미한다. 아래의 (55가)에서 ‘철수의’는 지정어가 되고, ‘연구에의’나 ‘연구에 대한’은 보충어가 된다. (55나)에서도 ‘철수의’가 지정어가 되고, ‘시골로의’가 보충어가 된다. ‘비판’에 대해서는 (55다, 라)와 같은 두 가지 구조가 가능하다. (56)은 해당 명사의 논항 구조를 보인 것이다.

- (55) 가. 철수의 연구에의/연구에 대한 현신
- 나. 철수의 시골로의 귀향
- 다. 철수의 영희에 대한 결점의 비판
- 라. 철수의 영희 결점/영희 결점의/영희의 결점에 대한 비판
- (56) 가. 현신 : <GKP, GKP(C=TKP(TK=에))/ADFP>⁴¹⁾
- 나. 귀향 : <GKP, GKP(C=TKP(TK=로))>

41) GKP는 속격 명사구를 말하며, GKP(C=TKP(TK=에))/ADFP는 보충어(C)가 되는 것은 속격 명사구(GKP)나 관형사형 어미구(ADFP)인데, 예의 속격 명사구는 ‘에의’와 같은 요소에 의한 달격 명사구를 보충어로 가짐을 나타낸 것이다.

- 다. 비판 : <GKP, NP/GKP/ADFP, NP/GKP>
 라. 비판 : <GKP, NP/GKP/ADFP>

여기서 ‘현신, 귀향, 비판’ 등과 같은 명사를 ‘사건성 명사’ 또는 ‘사건 명사’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들 명사가 일정한 사건 구조를 가진다는 것은 가령 ‘현신’에 대하여 ‘현신’을 의미의 중심으로 하여 문법적인 성분으로 나타나는, 현신하는 주체와 그것이 지향하는 대상이 이루는 의미 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귀향’에 대해서도 귀향하는 주체와 주체가 지향하는 장소를 상정할 수 있다. ‘비판’은 비판하는 주체와 비판을 받는 사람 및 비판의 대상을 상정할 수 있다. (55다)는 ‘비판’ 사건의 세 참여항이 모두 논항으로 나타난 것이며, (55라)는 세 참여항이 두 논항으로 나타난 것이다. 각각 (56다)와 (56라)에 해당한다.

(56)의 예들은 ‘-하다’ 동사에 대응하는 구조를 가지는 예들이다. ‘비판’의 논항 구조는 ‘비판하다’의 논항 구조와 평행적이다.⁴²⁾ 그러나 사건 구조가 반드시 용언의 의미역 구조와 대응되거나 평행적인 것은 아니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57) 가. 아군의 적군에 대한 철퇴가 가해졌다.
 나. 주변의 정적이 우리를 긴장시켰다.
 다. 동생의 쪽지가 우리를 안심시켰다.
 라. 양민들의 피폭이 우리를 경악케 했다.

(57가)의 ‘철퇴’는 “‘철퇴하다’와 같은 동사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철퇴’의 사건 구조에는 공격의 주체와 그 공격 대상이 상정될 수 있다. (57나)의 ‘정적’도 “정적하다”와 같은 서술어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주변의’는 ‘정적’의 사건 참여항이 될 수 있다. (57다)는 그 성립이 의심스러운 “‘쪽지하다’ 때문에 ‘쪽지’가 사건 참여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쪽지’의 화

42) 여기서 ‘논항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의미역 구조가 아니다. 의미역은 먼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석되는 것이다. 종래에는 암암리에 의미역이 명사구와 같은 것으로 변환되는 절차를 상정하여 왔다. 그러나 여기서는 구(句) 성분이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것이 사건 구조에서 가지는 역할에 따라 의미역이 해석된다. 의미역과 관련 없는 논항도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용론이 사건 구조를 형성하고 ‘동생’을 그 참여항으로 해석하게 한다. (57라)의 ‘피폭’은 ‘피폭되다’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것에 의존해야 사건 구조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명사구의 논항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 대부분의 경우 논항 실현이 매우 수의적이라는 것이다. (57)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보기로 하자.

- (58) 가. 적군에 대한 철퇴가 내려졌다.
- 나. 정적이 우리를 긴장시켰다.
- 다. 쪽지가 우리를 안심시켰다.
- 라. [?](양민들의) 피폭이 우리를 경악케 했다.

(58가-다)는 (57가-다)에서 제1 논항을 제거해 본 것이다. 성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58라) 정도가 팔호 속 성분 없이 그 성립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논항을 출현의 필수성에 기반을 둔 개념이라고 할 때, 이러한 현상은 논항 개념의 성립 자체를 의심스럽게 한다. 출현의 수의성을 중시하여 Grimshaw (1990)에서는 명사구에서 속격 명사구와 같은 것을 정식의 논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보충어라고 하여 반드시 그 출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58가)를 (59가)와 같이 바꾸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 (59) 가. 철퇴가 내려졌다.
- 나. 적군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59가)는 ‘철퇴’의 지향점 대상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이고, (59나)는 지향점 대상이 명사의 논항이 아니라 동사의 논항으로 나타난 것이다. ‘적군에게’는 ‘철퇴가 내려지-’에 의하여 선택되는 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내려지-’만으로는 ‘에게’ 요구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철퇴가 내려지-’는 동사로 재분석되어 ‘에게’ 구를 요구하게 된다.

출현의 수의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명사구의 논항은 반논항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논항은 비중이 낮은 논항으로 그 실현이 수의적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반논항에 대해서는 (15) 및 (17)과 관련한 논의를 참조하기 바란다. (57다)의 ‘비판’의

논항들을 반논항으로 표시하면 (60가)와 같이 된다. 논항의 출현이 수의적 이므로 팔호 속에 표시한 것이다.

(60) 가. 비판 : <(GKP), (NP/GKP/ADFP), (NP/GKP)>

나. [잘못된 비판]은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것이다.

(60나)의 ‘비판’에는 관련 논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논항은 나타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17)의 원칙에 따라, (60나)의 ‘비판’은 NP로서 부가어 ‘잘못된’을 가지는 구조로 분석된다.

이제 우리는 (54가, 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게 되었다.

(61) 가. 명사구에도 명사가 암시하는 의미-화용론적인 사건 구조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참여항을 논항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 명사구에도 의미상의 주어를 지정어로 상정하고 그 외의 논항을 보충어로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 명사구의 논항이 수의적인 것은 그것이 반논항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한다. 반논항은 비중이 작은 논항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54다)의 명사구의 바-층위 문제는 (7)과 관련된다. (7)에서 우리는 중간 투사는 가변적인 것으로, 또 그것은 보충어의 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명사구의 경우에도 이는 그대로 적용된다. 이를 (62)와 같이 정의하고 그 예를 (63)에 보이기로 한다.

(62) 명사의 중간 투사에 대한 정의

가. 지정어(의미상의 주어) 외에 보충어 하나를 필요로 하는 명사는 보충어와 함께 중간 투사 범주 NB(N-Bar)를 형성한다.

나. 지정어(의미상의 주어) 및 제1 보충어 외에 또 다른 보충어가 있을 경우, NB는 제2 보충어와 함께 NBB(N-Double Bar)를 형성하고, NBB는 제3 보충어와 함께 NBBB (N-Triple Bar)를 형성한다.

(62) 가. [NP [GKP [NP 철수][GK 의]]] [N 참]]

나. [NP [GKP 철수의]] [NB [NP 언어] [N 연구]]]

다. [NP [GKP 철수의]] [NBB [GKP [TKP [NP 영희][TK에 게]]][GK의]]][NB 상장의 [N 수여]]]]

라. [NP [GKP 철수의]] [NBBB 이 책의 [NBB 영어로부터의 [NB 한국어로의 [N 번역]]]]]

(62가)는 명사 핵 '잠'이 '철수의'라는 속격 조사구를 지정어로 가지고 명사구가 됨을 보인 것이다. (62가)에서는 '철수의'의 구조를 자세히 보였으나, (62나-라)에서는 '철수의'를 단순히 속격 조사구로만 표시하였다. '잠'은 '자다'에서 온 명사이기 때문에 지정어를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잠'의 의미-화용론적 전제에 의하여 그 주체가 지정어로 상정된 것이다. '잠'은 보충어 없이 지정어만 가지고도 명사구가 된다. (62나)는 '언어'가 '연구'의 보충어로 상정된 구조이다. 핵이 보충어를 가지고 NB가 되고 다시 지정어를 가지고 NBB가 된 구조이다. (62다)는 보충어가 둘인 경우이고, (62라)는 보충어가 셋인 경우이다. 네 자리(4가) 명사의 예는 다소 잘 쓰이지 않는 것일 뿐, 그 존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63) 가. [NP [GKP 철수의]] [NBB [GKP 각 사원들i에게의]] [NB 그들i 책의 [N 반 환]]]]

나. [NP [GKP 철수의]] [NBB [GKP 열회i에게의]] [NB 자기i 인식의 [N 촉구]]]]

(63)은 수여 동사 구성에서 여격어(본고에서의 달격어)와 대격어 사이에 성립하는 비대칭성 문제를 명사구로 옮겨온 것이다. (63가)는 '그들'이 '각 사람'에 결속된 대명사로 해석되는 예이다. 조사가 비관여적이라는 조건만을 부가하면, 비대칭성을 설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63나)도 같다.⁴³⁾

이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64) 가. 철수의 아버지의 사진

나. 철수의 카뮈의 소설

(64가, 나)가 가지는 여러 해석 중 '철수'나 '카뮈'가 '사진'이나 '소설'의

43) 임홍빈(1999)에서는 바의 수를 둘로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재분석을 통하여 바-하나 범주가 핵 범주로 재분석되는 절차를 상정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와 같이 바의 수효를 보충어의 수에 비례하게 한다면, 재분석이 불필요하게 된다.

제작자이거나 작자일 때 ‘철수의’나 ‘카뮈의’는 핵 명사의 논항으로서 의미상의 주어 곧 지정어의 자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사진’이나 ‘소설’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 구조에서 제작자나 작자는 사건 구조의 주요 참여항이다. ‘아버지’는 사진에 찍힌 인물로 ‘아버지의’는 개념상 보충어의 자격을 가진다. 한편 (64가, 나)의 ‘철수’는 사진이나 소설을 가진 사람이거나 읽은 사람 이거나 파는 사람이거나 추천한 사람이거나 기타 등등 소설을 매개로 하는 관계를 가지는 사람일 수 있다.⁴⁴⁾ 이러한 관계를 총칭하여 ‘소유 관계’라 하고, 소유 관계의 주체를 소유주라고 하자. 이 때, 소유주는 명사 자체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는 주체가 아니다. 모든 구체적인 대상에는 대체로 소유주가 상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휘 특수적인 것이 아니다. 논항을 어휘 제약적인 것이라고 할 때, 소유주는 적어도 개념상 논항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 소유주를 혹 의미상의 주어와 동일시하는 일이 있으나, 여기서 그것은 논항이 아닌 부가어로 분석된다. 그것은 적어도 사건 구조의 주요 참여항이 되지 못한다.

이제 (54라) 곧 명사구 부가어의 문제를 보기로 하자. 부가어로 대표적인 것은 관형사이다.

- (65) 가. 이 여러 새 책
- 나. [이 [여러 [새 책]]]
- 다. [NP 이 [NP 여러 [NP [ADN 새]][NP 책]]]]

(65가)는 ‘책’ 앞에 ‘이, 여러, 새’라는 관형사가 쓰인 예이다. ‘새’는 ‘성상 관형사’로 ‘성상사,’ ‘여러’는 ‘수 관형사’로 ‘양화사,’ ‘이’는 ‘지시 관형사’로 ‘지사사’와 같이 부를 수 있다. 이들 관형사는 ‘책’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 구조에서의 주요 참여항이 되지 못한다. ‘책’의 쓰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분도 아니다. 따라서 ‘이, 여러, 새’는 부가어로 성격지울 수 있다. (65나)는 이들 수식어가 평면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층위의 차이를 가지는 것임을 보인 것이며, 부가어는 바의 층위를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⁴⁵⁾

44) (64나)에서 ‘카뮈’는 ‘소설’이 다루는 인물일 수 있다. 이 경우 ‘카뮈의’는 ‘소설’의 보충어이다.

그 범주의 명칭을 붙여 본 것이 (65다)이다. ‘책’은 그것 자체로 NP가 된다. ‘책’은 그 저자와 서술 대상을 논항으로 가질 수 있기는 하나, 예에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62다)에 따라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명사 그 자체가 명사구가 된다. ‘이 여러 새’ 등은 부가어이므로, NP의 바-층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65가)의 부가어들이 (65나, 다)와 같은 층위를 이룬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 (66) 가. ⁷새 여러 이 책
나. ⁷여러 새 이 책
- (68) 가. 이 여러 [새 책] ⇒ 이 여러 것
나. 이 [여러 새 책] ⇒ 이 여럿
- (69) 가. 저기 저 사람이 아버지 친구분이시다.
나. *저 저기 사람이 아버지 친구분이시다.
- (70) 가. 바로 저 사람이 고향 친구이다.⁴⁶⁾
나. *저 바로 사람이 고향 친구이다.

(66가, 나)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자연스럽다. (66가)는 적어도 ‘새, 여러’ 뒤에 휴지를 두어야 자연스럽고 (66나)도 ‘여러, 새’ 뒤에 휴지를 두어야 자연스럽다. 이는 관형사의 명사 앞 위치는 (65가)와 같이 지시사-양화사-성상사의 순서가 가장 자연스러움을 의미한다. 지시사-양화사-성상사가 평면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차이는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66가, 나)도 단순한 어순 바꿈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가어가 바-층위의 차이를 유발하거나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가어끼리 어떤 계층적인 질서를 이루고 있음을 말해 준다.

(68)은 대치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 (68가)는 ‘새 책’을 ‘것’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이고, (68나)는 ‘여러 새 책’을 하나의 성분 ‘여럿’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인다. ‘것’과의 대치 검증이 정확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대치는 성분성과 관련되고, 그것은 계층성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45) 이에 대해서는 Radford (1988) 및 임홍빈·장소원(1995)를 참조하기 바란다.

46) ‘특히’가 보이는 특성도 거의 ‘바로’와 같다.

(69가)는 ‘저기’와 같은 장소 지시 표현이 반드시 ‘저’와 같은 지시사 앞에 와야 함을 보인다. (69나)는 그 순서를 바꾸어 본 것이다. (69나)는 국어에서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제약은 지시 범위가 큰 것이 먼저 온다는 의미론적인 성격을 띤 제약일 수 있다. 그러나 평면적인 어순적 사실이라면 어느 것이나 핵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므로, (69)와 같은 현상이 생길 리 없다. (70가)의 문제도 (69가)와 유사하나, (70)에서는 ‘바로’가 부사라는 것이 다르다. 순서를 바꿀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부가어도 같은 층위에 무차별적으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 투사에 부가된다고 하더라도 서로 층위를 달리하는 것임을 말해 준다.

실제로 바-층위의 차이를 달리하게 되는 것은 (71)과 같은 구조에서이다. 편의상 (4)의 일부를 여기에 다시 가져오기로 한다.

(71) 가. 이 철수의 여러 천문학의 새 연구(여기서 ‘이’나 ‘여러’는 ‘연구’를 수식 한다)

나. [NP 이 [NP 철수의 [NB 여러 [NB 천문학의 [N새 [N연구]]]]]]]

다. 철수의 이 여러 천문학의 새 연구(여기서 ‘이’나 ‘여러’는 ‘연구’를 수식 한다)

라. 철수의 천문학의 이 여러 새 연구

마. ??*이 여러 새 철수의 천문학의 연구(여기서 ‘이’나 ‘여러’는 ‘연구’를 수식한다)

바. ?이 여러 철수의 천문학의 연구(여기서 ‘이’나 ‘여러’는 ‘연구’를 수식한다)

사. 새 철수의 연구

(4) 라. *[새 그]가 그들에게는 친절하다.

마. *[새 철수]가 그것을 하였다.

바. *우리는 [새 셋]을 샀다.

(71가)는 ‘연구’를 핵으로 하는 보충어와 지정어 층위에 각각 관형사 부가어가 쓰인 것이다. ‘새’는 N 층위의 부가어가 되고, ‘여러’는 NB 층위의 부가어가 되고, ‘이’는 NP 층위의 부가어가 된다. 그러나 그 층위가 항상 이렇게 고정된 것은 아니다. (71다)의 ‘이’, ‘여러’는 NB 층위의 부가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71라)의 ‘이’, ‘여러’는 N 층위의 부가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부가어가 그 쓰임에 따라서 층위를 달리하게 됨을 보인다. 그러나 그 쓰임이 언제나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71마)는 ‘이, 여러, 새’를 NP의 부가어로 상정해 본 것이다. 성립하지 않는다. (71바)와 같이 ‘이, 여러’만을 NP의 부가어로 상정했을 때는 (71마)에 비교해서 그 성립성이 좋아진다. ‘새’와 같은 성상사의 수식 범위가 다른 관형사보다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라-바)도 그러한 사실의 일단을 말해 준다. 이를 토대로 하여 (65다)의 ‘책’을 N으로 상정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그러한 분석을 가능성의 하나로만 남겨 두려고 한다. (71사)와 같은 예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서 ‘새’는 ‘철수의 연구’라는 NP에 대한 부가어의 자격을 가진다.

- (72) 가.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나. 그것은 크게 생각할 바가 없다.

다. 눈을 즐겁게 해 주는 아름다운 것 (김용하(1990 : 66) 참조)
 라. 새 것, 큰 것, 작은 것.

- (73) 가. 바 : <ADFP>⁴⁷⁾
 나. 것 : <ADN/ADFP>⁴⁸⁾

(72가-라)는 의존 명사구의 예를 보인 것이며, (74마-바)는 보문 명사구의 예를 보인 것이다. (73가, 나)는 의존 명사 ‘바’와 ‘것’의 통사 정보를 보인 것이다. ‘바’는 적어도 관형사형 어미구를 보충어로 선택하며, ‘것’은 관형사나 관형사형 어미구 중 어느 것을 보충어로 선택한다. (73가, 나)의 보충어에는 팔호를 하지 않았다. 그들의 출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것’은 관형사가 와도 좋고, 관형사형 어미구가 와도 좋다. 그러나 둘 중 어느 하나는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⁴⁹⁾ 따라서 김용하(1990 : 66-67)의 지적과는 달리 (72다)에서 ‘눈을 즐겁게 해 주는’이 보충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운’도 ‘것’의 통사적 요구를 충족시킨다. 일단 ‘아름다운’으로 통사적 요구가 충족되었으므로, ‘눈을 즐겁게 해 주는’은 부가어의 성격을 띤다. 이와 관련

47) 여기서 ADFP는 관형사형 어미구를 말한다.

48) 여기서 ADN은 관형사를 가리킨다.

49) (72라)의 관형사는 비록 다른 구성에서는 수의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는 것이나, ‘것’에 대해서는 논항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여 ‘전(前)’이나 ‘십상이다’ 구성을 보기로 한다.

- (74) 가. 영희가 떠나기 전에 철수가 떠났다.
 나. 30일 전에 철수가 떠났다.
 다. 영희가 떠나기 30일 전에 철수가 떠났다.
- (75) 가. 잘못하면 그물 속의 고기 끌이 되기 십상이다. <좌백, 대도오>
 나. 사촌인가 보다 하고 여기기가 십상이었다. <이상우, 고양이는 알고 있다>
 다. 이번 일은 잊기에 아주 십상이다.
 라. 무슨 명칭을 부르며 대꾸해야 십상일까. <이문구, 관총수필>

(74)에서 보면 ‘전(前)’은 (70가)와 같이 ‘-기’ 명사형 전성 어미구를 필요로 하든가, (74나)와 같이 양화 표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74다)는 ‘전’ 앞에 ‘30일’과 같은 양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 명사형 전성 어미구를 요구한다. ‘30일 전’이 다시 재분석되어 ‘전’과 같이 ‘-기’ 명사형 전성 어미구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전’과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양화 표현은 다시 오지 못한다.

(75)는 ‘십상이다’ 구성의 예를 보인 것이다. (75가)는 그 앞에 ‘-기’ 명사형 전성 어미구가 온 예이며, (75나)는 ‘-기’ 구성이 온 예이고, (75다)는 ‘-기에’ 구성이 온 예이고, (75라)는 ‘-아/아야’ 구성이 온 예이다. 기본적인 구성은 (75다)인 것으로 여겨진다. (75나)의 ‘-기’의 ‘가’는 보조사로 주제 표지의 일종이다.⁵⁰⁾ (75가)에는 ‘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75)를 ‘십상’ 구성이 아니라 ‘십상이다’ 구성으로 보는 것은 ‘십상’이란 명사가 ‘에’ 논항을 요구한다고 보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이다. (75다)에서 ‘십상이다’ 앞에 ‘아주’라는 부가어가 있어도 그것이 ‘-기’ 명사형 전성 어미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동사에 부가어가 있다고 그 논항 조건이 달라 지지 않는 것과 동궤의 사실이다.

- (76) 가. 철수가 미국에 간다는/그가 간 사실
 나. 나를 죽이려는 비열한 생각

50) ‘그것은 잊기에가 십상이다’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 (77) 가. 사실 : <(ADFP)>
 나. 생각 : <(GKP), (NP/GKP/ADFP)>

(76가, 나)는 보문 명사 ‘생각, 사실’의 예를 보인 것이다. 그 통사 정보는 (77가, 나)와 같이 표시될 수 있다. (76)에서 밑줄 친 부분은 ‘생각’이나 ‘사실’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흔히 명사구 보문 구성으로 불린다. 그러나 (76)에서 밑줄 친 부분은 통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아니다. 그것은 ‘생각’이나 ‘사실’의 내용을 전달한다. 그것이 사건 구조에서 어떠한 참여항이 되는지는 불투명하나, 의미론적인 보충어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는 (73)이나 (76)의 표시를 통사 정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10)과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를 넓은 의미의 ‘논항 구조’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이는 ‘논항 구조’라는 것을 의미역 구조로만 한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관형사나 속격 조사구 및 관형사형 어미구나 명사 관형어가 명사구에 참여하는 방식은 매우 복잡하다. 그 지배적인 경향은 실제 자료에서 더 잘 드러날 수 있다. 관형사절을 긴 관형사절과 짧은 관형사절로 나누고,⁵¹⁾ ‘어느, 어떤, 무슨, 다른, 어떠한’ 등과 같은 요소를 준지시사로 분류하여, 동일 명사를 수식하는 둘 이상의 부가어를 가지는 구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⁵²⁾ 조사 결과 나타난 지배적인 경향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 (78) 가. 긴 관형사절은 지배적으로 짧은 관형사절과 지시사 앞에 나타난다.
 나. 지시사는 지배적으로 짧은 관형사절과 준지시사 앞에 나타난다.

51) ‘긴 관형사절’과 ‘짧은 관형사절’은 품사와 절의 길이와 구성의 복잡도에 따른 구분이다. ‘넓은, 깊은, 엄한, 수많은, 지난, 먼, 철저한, 검은’ 등과 같은 형용사의 현재 관형사형은 ‘짧은 관형절’로, 동사의 관형사형이나 형용사라도 논항이 부가되거나 선어 말 어미가 쓰이거나 ‘-을’ 관형사형 어미를 가진 것은 ‘긴 관형사절’로 분류한다.

52) 여기서 사용된 말뭉치는 남윤진의 품사 부착 말뭉치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대한민국 국어정보베이스 I, II’ 및 STEP 2000 중 일부이다. 자료 조사에는 최형강, 류남혁, 신서인 군이 도움을 주었다. 많은 자료를 검색하였으나 동일한 명사를 수식하는 둘 이상의 부가어가 쓰인 예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 결과는 엄선된 629개의 예문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 다. 지시사는 양화사와 성상사 앞에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⁵³⁾
- 라. 준지시사는 짧은 관형사절 앞에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⁵⁴⁾
- 마. 양화사는 짧은 관형사절 앞에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 바. 속격 조사구는 지배적으로 긴 관형사절 뒤, 그리고 짧은 관형사절 앞에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의하여 (65가)와 같은 지시사-양화사-성상사와 같은 순서가 기본적이라는 직관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 지시사-양화사-성상사가 모두 동일한 명사를 수식하는 구성을 직접 확인되지 않는다. 그것은 (78나, 다, 마)를 통한 유추의 결과이다.⁵⁵⁾

이러한 분포를 통하여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국어에서 짧은 관형사절의 위치가 아주 특이하다는 것이다. 짧은 관형사절은 그 분포가 성상사와 흡사하다. (78)에 나타난 것으로만 본다면 짧은 관형사절은 긴 관형사절 뒤에 나타나고(78가), 지시사 뒤에 나타나고(78나), 준지시사 뒤에 나타나고(78라), 양화사 뒤에 나타나고(78마), 지배적으로 속격 조사구 뒤에 나타난다(78바). 그러나, 긴 관형사절은 다른 모든 관형어 앞에 오는 지배적인 경향을 보인다.

- (79) 가. 끊어질 듯하다가 다시 이어 가는 구슬픈 트럼펫 소리 <김상, 따이한>
나. [”]구슬픈 끊어질 듯하다가 다시 이어 가는 트럼펫 소리
- (80) 가. 경무대 앞에서 데모를 하던 지난날⁵⁶⁾ <따이한>
나. *지난, 경무대 앞에서 데모를 하던 날 <따이한>

(79나)는 (79가)의 짧은 관형사절 ‘구슬픈’을 긴 관형사절 앞에 놓아 본 것이다. 거의 성립하지 않는다. (80가)와 달리 (80나)는 거의 완전한 비문이다. 이는 국어에서 짧은 관형사절이 절의 기능을 떠나 특이한 성격을 획득

53) 629개의 자료의 범위 내에서, 양화사가 지시사 앞에 나타나는 예도 없었고, 성상사가 양화사 앞에 나타나는 예도 없었다. 명사 관형어는 성상사의 일종으로 다루었다.

54) ‘어느, 어떤, 무슨, 다른, 어떠한’을 준지시사라고 한 것은 ‘이 무슨 꿀, 그 어떤 사람, 그 어느 사람’ 등과 같은 구성을 고려한 것이다.

55) 이러한 유추는 (72마)의 ‘짧은 관형사절’을 성상사로 본 결과이다.

56) ‘지난날’을 사전에서는 흔히 단일한 합성어로 취급한다. 여기서는 그 원리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것은 성상사와 유사한 성격이다. 이 점은 (78)의 분포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난다. 성상사가 나타나는 위치와 짧은 관형사절이 나타나는 위치가 유사하다. 양화사는 짧은 관형사절 앞에 나타나는데(78마), 양화사 뒤에 오는 자연 부류가 성상사인 것이다.

또한 ‘지난날, 지난번, 지난밤, 지난 학기, 먼 옛날, 먼 과거, 먼 친척, 가까운 장래’ 등과 같이, 관계 구성과 흡사하면서도 핵 명사를 관계절 안의 성분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예들이 있는 것이다. 이들은 성상사화의 과정을 밟거나 성상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들이며, ‘먼먼 과거, 먼먼 옛날’의 ‘먼먼’은 이미 형용사로서의 활용을 잃은 것이며, ‘수많은 오류’에서의 ‘수많은’도 서술어적인 쓰임을 잃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짧은 관형사절이 의미론적인 재분석의 작용을 받아 성상사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되는 데서 비롯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81) 짧은 관형사절의 통사적 지위

국어에서 짧은 관형사절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 즉 성상사와 유사한 성격을 띠는 의미 단위로 재분석되는 경향을 띈다.

(81)은 ‘넓은, 좁은, 큰, 작은, 적은’ 등과 같은 형용사의 관형사형 어미구가 성질이나 상태를 뜻하는 관형사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는 국어의 직관을 설명해 준다. 짧은 관형사절이 절적인 성질을 모두 잃고, 애면 그대로의 성상사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절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선어말 어미를 가질 수도 있고, 서술어로서 외현적인 논항을 가질 수도 있다.⁵⁷⁾ 이 경우 그것은 성상사적인 것이 아니다. 국어에서는 적어도 짧은 관형사절을 긴 관형사절과 동일한 절이라고만 보아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는 것이다.

이제 다음 예를 보기로 한다.

57) 국어 문법은 전통적으로 이 절적인 성질을 중시해 왔다. 현행 학교 문법도 이에 예외는 아니다. 최근 이 성질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노마[野間秀樹](1997 : 123)이다.

- (82) 가. [철수와 영희]가 왔다.
 나. [철수 그리고/또는/및/혹은 영희]가 왔다.
 다. [총리 겸 장관]이 왔다.
 라. 나는 [철수, 그]가 부럽다.
 마. [영희가 동생]이 [철수를 형]을 만났다.
 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이현우(1995) 참조)
 사. 책 말고 연필을 주세요.(이현우(1995) 참조)

(82가-마)는 접속에 의한 명사구 확장 및 특수한 구성의 예를 보인 것이다. (82나-다)의 ‘그리고, 또는, 및, 겸’ 등을 접속 부사라고 하는 분류상의 문제를 제외하면,⁵⁸⁾ (82가-다)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82라)는 제시-지시 구성의 예이며, (82마)는 성분 주체 구성의 예를 보인 것이다. (82바, 사)는 이현우(1995)에서 명사구로 본 것이나, ‘자유 아니면, 책 말고’가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고, ‘자유가 아니면’이나 ‘책을 말고’와 같이 다른 격조사가 쓰일 수도 있다. 그것은 명사구의 일반적인 성격과는 다른 것으로, (82마, 바)의 밑줄 친 부분이 명사구가 아님을 의미한다.

이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83) 가. 한국에서 제일이 세계에서 제일이다.
 나. 너에게 책은 돼지에게 진주와 같다.
 (84) 가. 한국에서의 제일이 세계에서의 제일이다.
 나. ‘한국에서’ 제일이 ‘세계에서’ 제일이다.
 다. ‘한국에서 제일(이-)’이 세계에서 제일이다.

(83가, 나)는 명사 앞에 부사격 조사 구성이 나타난 경우이다. (84가-다)는 (83가)를 예로 삼아 세 가지 해결법을 예로 보인 것이다. (84가)는 밑줄 친 부분에 보인 바와 같이 부사격 조사 뒤에 속격 조사 ‘의’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방식을 보인 것이다. 명사 앞에 부사격 조사가 온다는 불가해성은 일단 해소된다. (84나)는 ‘한국에서’와 같은 부사격 조사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인용 효과에 의하여 명사로 재분석되는 과정을 보인 것이다.

58) 이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접속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른 부사의 쓰임과 판연히 다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도 명사 앞에 부사격 조사가 온다는 불가해성을 일단 해소된다. 그러나 (84가)는 너무 부자연스럽고 지나치게 문어적인 해석이다. (83가)는 그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다. (84나)도 그럴 듯한 방법의 하나이나, 부사격 조사구의 명사적인 쓰임에는 ‘서울에섯 일, 앞으로 일’과 같이 사이시옷을 개재된다는 것이 문제된다.

여기서 제안하려는 해석법은 (84다)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84다)에 보인 바와 같이 지정 형용사 ‘이-’를 보충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되면 ‘제일 (이-)’가 서술어가 되고, ‘한국에서’는 그에 대한 부사어가 된다. 부사어의 쓰임이 자연스러운 이유가 해명되고, ‘한국에서 제일’이 독립 명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설명될 수 있다. 지정 형용사 ‘이-’가 이 같은 구성에서 생략되는 일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으나, ‘이-’ 보충은 위의 (33)의 예들에 대해서도 행해졌던 것이므로 충분한 동기를 가진다.

보충의 방법은 다음 예의 해석에도 필요하다.

- (85) 가. 물리학을 연구 중에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다.
 나. 그들은 지금 경제 문제를 토의 중이다.
 다. *물리학을 진지한 연구 중이다.
- (86) 가. 언어 이론을 도입,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나. *언어 이론의 도입,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85)와 같은 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다.⁵⁹⁾ 우리가 제안하려는 것은 필요한 요소를 보충하는 방법인데, 김창섭(1997)에서 이미 (86)의 ‘도입’과 같은 예를 주로 다루어 그것이 ‘-하-’ 파생어/합성어의 어기임을 밝히고 있다. ‘-하다’의 활용형이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것이 최기용과 유사하나, 그것을 어기로 보는 점이 다르다. (85가)의 본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이 상정된다. 최기용(1996)의 해석법도 이러한 방식이다.

59) 안희돈(1991), 채희락(1997)에 의하면, (85)의 ‘연구, 토의’는 동사적 명사(verbal noun)이다. 서정수(1975), 안희돈(1991)에서 이들은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이다. 노용균(1997)에서도 비슷하다. 박갑용(1992)은 이들을 동사이면서 명사인 것으로 보았다. 반면, 채희락(1997)에서는 동사라기보다는 명사이다. 최기용(1996)에서도 이들은 명사이다. 여기서 주목하려는 것은 어기설이다.

(87) 물리학을 연구하는 중에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다.

여기서의 관심은 (85가)의 ‘물리학을 연구’가 명사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명사구가 되지 못한다. (85다), (86나)와 같이 명사 앞에 관형어가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문제의 요소가 용언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85가)에서 ‘연구’는 (87)과 같이 ‘연구하는’으로 해석된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이지만, 여기서는 다소 해석을 달리하려고 한다. 생략적 접근보다는 보충적 접근 방식을 우위에 두는 것이다. 생략적 접근 방식은 ‘연구하는’에서 ‘하는’이 생략되었다고 보는 방식이나, 보충적 접근 방식은 ‘물리학을’의 출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는’과 같은 요소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보는 방식이다. 보충적 접근은 다음과 같은 예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이점을 가진다.

(88) 가.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다.

나. *물리학을 연구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다.

(88나)는 (88가)에서 ‘하는’를 생략한 것이다. 성립하지 않는다. 보충적 접근에서도 똑같은 난점이 발생한다고 할지 모른다. (88나)에 ‘하는’을 보충하면 (88가)가 되는데, 왜 (88나)는 성립하지 않는가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보충적 접근에서는 (88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성립 가능한 예를 해석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해석을 위한 입장이기 때문에, ‘연구’가 어기이면 어기를 그대로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에 의하면 (85가)의 ‘연구’는 어기이면서 [+ N]의 성질을 띠고 ‘중’을 수식하는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한 구조에서는 ‘중’이 ‘연구’의 용언성/어기성을 촉발할 수 있게 된다. 왜 그런가? ‘중’은 상적(相的)인 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가 이중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 동시에 두 가지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그 속성을 달리하는 것이다. 목적어를 가질 때가 전형적으로 용언 또는 용언의 어기로 행동하는 경우이다.

(89) 가. *⁷물리학을 [연구와 토론] 중에 그런 생각이 나왔다.

- 나. “물리학을 [연구며 토론이며] 중에 그런 생각이 나왔다.
- 다. 물리학을 [연구에 토론에] 그는 활동이 많았다.
- 라. 물리학을 [연구랑 토론이랑] 중에 그런 생각이 나왔다.
- 마. 물리학을 [연구 그리고 토론] 속에 그런 생각이 나왔다.

(89)는 문제의 요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등위 접속 또는 나열해 본 것이다. (89다-마)는 거의 아무런 이상을 가지지 않는다. (89가)가 가장 나쁘고, (89나)는 그보다는 낫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접속 구성의 성격에 따라 용언적인 성질의 발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와/과’ 구성은 명사성을 가장 강조하는 구성으로 여겨진다. (89가)가 이상을 가지는 이유이다. (89다-마)에 대하여 생략적 접근은 거의 설명력을 잃게 된다. 다음 예도 성격이 유사하다.

- (90) 가. 그가 우리 일을 간섭이다.
- 나. 그가 이 일을 시비다.
- 다. 영희가 회사 일을 걱정/근심/염려이다.

(90)은 목적어를 가지는 명사가 ‘이다’ 구성에 쓰인 예이다. ‘-하다’ 생략에 의해서는 이를 예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보충적 접근에 의하면, 목적어를 성립시킨 것은 어기이며, ‘이다’를 후행시킨 것은 명사이다. ‘이다’는 선행 명사의 용언적 성질을 어느 정도 보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언제나 그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는 물리학을 연구다!’와 같은 표현은 평서라기보다는 명령적 효과를 가지는 문장이며, 인용적 문맥을 형성한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91) 가. [철수 그것도 본인]이 이 일을 하였다.
- 나. [철수 바로 본인]이 이 일을 하였다.
- (92) 가. [NP[NP 철수]][[MHP[그것도][NP본인]]]
- 나. [NP[NP 철수]][[ADV 바로][NP본인]]]

(91가, 나)의 팔호 친 부분은 명사구이다. 팔호 속의 성분은 어느 것도 다른 위치에 쓰일 수 없다. 명사구로서의 성분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구조이다. (92가, 나)는 (91가, 나)의 팔호 속 부분의 구조를 보인 것이다. (92)에서 '철수'는 제시어이다. 이를 '제시 주제'라 할 경우, '철수'의 범주를 P-TOP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⁶⁰⁾ (92가)의 '그것도'는 보조사구로, 성분 주제의 성격을 가진다. '그것도'가 (92나)의 '바로'와 대응되는 위치에 나타나는 것도 흥미롭고, 접속어의 일종처럼 보이는 것도 흥미로우나, 어디까지나 원리적인 성격을 중시하기로 한다.

6. 결론

본고의 주된 관심은 국어의 명사구와 조사구가 가지는 구조와 층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었다. 명사구와 조사구에 대해서는 이미 임홍빈(1987나)에서도 다룬 바 있으나, 격과 조사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문법적 층위나 격에 관한 기본 가정 및 보조사가 이루는 구성에 대한 생각이 크게 바뀐 것이 이미 다른 문제를 다시 논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임홍빈(1987나)는 기본적으로 엑스-바 이론에 의하지 않고 조사구를 명사구와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구조를 기술하려고 하였다. 국어의 명사구는 조사구와 함께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엑스-바 도식과 같은 일률적이면서도 간단한 도식으로 기술될 수 없다는 생각을 기초로 한 것이다. 엑스-바 도식이 경험적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란 그 때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엑스-바 이론은 상당한 결함을 감수하는 것이다. 순차성 조건이나, 동심성 조건, 또는 획일성 조건 등이 모든 범주에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홍빈(1987나)가 엑스-바 도식을 택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예외와 결함 때문이었다. 본고는 엑스-바 이론의 불가피한 결함은 그대로 인정하는 입장에서, 종래 소홀히 한 부분을 강화하고 그 적용력을 높이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60) 이러한 기능 표지의 도입은 다른 구성, 가령 단순 명사구 접속이나 관형 구성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제안은 '가변 중간 투사 가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중간 투사는 매우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이 중간 투사를 결정하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태였다. '단일 보충어 가설'과 같은 근거없는 가설조차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변 중간 투사'란 보충어의 수에 따라 중간 투사의 수를 달리 설정하는 것이다. 보충어가 없으면 중간 투사는 없는 것이며, 보충어가 하나이면 중간 투사는 하나이고, 보충어가 둘이면 중간 투사는 둘이 된다. 중간 투사가 확실히 언어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고에서의 또 다른 제안은 모든 범주가 투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범주가 투사를 위한 동일한 출발점에 서는 것도 아니란 것이다. 감탄사, 접속어, 관형사는 전혀 투사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대명사와 고유 명사 및 수사는 그 자체가 명사구인 것으로 정의된다. 이들은 그들을 의미-화용론의 중심으로 하는 사건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대 투사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였다. 모든 최대 투사에 지정어가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구범주에 대한 주어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만 지정어를 인정한다고 할 때, 모든 범주의 최대 투사에 대하여 지정어를 상정하는 것은 원리상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며 무익한 일이다. 그것을 통사적 이동의 기지와 같은 이용하는 것은 교활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논항에 대해서도 그 비중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온논항과 반논항을 구별하였다. 온논항은 온전한 논항의 가치를 가지는 논항이다. 전형적인 예는 타동사의 목적어와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가' 동사 구성의 출격 조사구와 같은 논항은 반논항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쓰임에서 그것은 논항 의식이 강하지 못하다. 반논항은 쓰이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 온논항과 다른 점이다. 논항을 반드시 의미역 논항으로만 한정하지 않은 것도 본고의 특징이다. 격조사의 보충어가 명사구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역을 가지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사건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다.

본고에서 명사구와 조사구는 분명히 구별된다. 명사구는 명사를 핵으로 하는 구성이며, 조사구는 조사를 핵으로 하는 구성이다. 조사구는 그 핵의 성격에 따라 격조사구와 보조사구와 접속 조사구로 나뉜다. 명사구 구성에서 격조사나 후치사 등을 핵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격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가 각기 독립적인 투사를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명확한 모습을 갖추었던 것은 아니다. 이에는 구조격 논의에 의한 영향도 있었고, 결정사구(DP) 가설에 의한 영향도 적지 않다.

격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정확하게 국어의 격을 명사구가 격조사를 가짐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적어도 문제 자체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격이 격조사에 의하여 표시된다면, 구조격이나 어휘격과 같은 구분은 필요하지도 않고 전혀 유용하지도 않은 개념임이 확실해진다. 격조사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격이 있는 것이고, 격조사가 없으면 격이 없는 것이다. 이 원칙에 충실하면, 격조사 생략과 같은 것은 없는 것이 된다. 격표지 없이 쓰인 명사구에 대하여 격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일종의 격 해석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조사가 없는데 격조사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격조사구는 명사구나 명사형 전성 어미구를 보충어로 가진다. 어말 어미구 뒤에 조사가 쓰이는 것은 선행 구성이 재분석이나 인용적인 효과에 의하여 명사구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최대 투사이다. 조사구에 지정어와 같은 것은 상정되지 않는다. 보조사 뒤에 격조사가 쓰이는 것도 재분석에 의하여 명사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해석된다. ‘철수에게 그리고 영희에게’와 같은 구성에 대하여 가상 범주를 설정한 것도 특이한 것이다.

보조사구는 보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구범주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보조사는 명사구, 격조사구, 다른 보조사구, 부사나 부사구⁶¹⁾ 어말 어미구 등을 그 보충어로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그 분포가 특정한 어미 형태 뒤에만 한정되는 ‘그려, 그래, 마는’ 등과 같은 요소는 제외된다. 격조사의 부류를 정하는 문제도 심각한 것이지만, 보조사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보조사를 극히 적은 범위로 제한하는 논의도 있고, 그 범위를 아주 넓게 확대하는 논의도 있어 정확한 부류의 설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보조사와 접속 조사와의 구별도 문제이다. 경계적인 현상이 어느 경우에나 투명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 부류 확정에 가능한 한

61) 부사는 보충어를 가질 때에만 투사되는 것으로 상정된다. ‘함께, 같이, 없이, 고사하고’ 등과 같은 특수한 부사만이 ADVP로 투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 하였다. 가령, 복수 표지 '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조사로 보는 논의가 많아지는 추세이나, 적어도 거의 모든 격조사가 그 뒤에 올 수 있는 '들'은 보조사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 '이거나, 이고, 이며, 이든, 이든가'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접속 조사적인 가치를 인정하였다. 보조사의 겹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보조사를 앞보조사, 가운데보조사, 뒤보조사와 같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그 분포를 검토하였다. 동일 보충어에 대해서는 앞보조사만이 거듭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추출된다. '도'에 의한 나열은 가상 범주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성격지어졌다. '며/이며' 등에 의한 명사구 접속은 이중적인 구조의 가정을 불가피하게 한다. 본래적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보조사구가 무표지 명사구와 마찬가지로 정규 논항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구조 설정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는 구조 설정에서 격조사를 가진 논항과 보조사를 가진 논항을 구별할 수 있는 이론적 준거가 될 수 있다.

이제 명사구는 고유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를 제외하면 정확하게 명사를 핵으로 하는 구성에만 한정되게 된다. 명사도 논항을 가지는가? 명사도 물론 논항을 가진다. 명사도 지정어와 보충어를 가지고 투사한다. 그 투사는 대체로 '-하다. -되다' 용언 구성과 평행적이다. 그러나 그 구성이 어느 경우에나 '-하다. -되다' 구성과 평행적인 것은 아니다. 여기에 도입된 것이 '사건 구조'라는 것이다. 사건 구조는 의미역 구조와 유사한 것이나, '철퇴'와 같은 것에 대해서도 상정된다는 점에서 그보다는 포괄적인 것이다. '철퇴'는 "철퇴하다"란 동사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건 구조에는 '철퇴' 사용자와 '철퇴'가 향하는 대상을 상정할 수 있다. 그것은 또 '아군의 적군에 대한 철퇴'와 같이 일정한 논항으로 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사건 구조를 상정할 수 있는 명사는 사건 참여항의 수에 따라 보충어와 지정어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도 보충어가 하나이면 NB 범주를 이루고 보충어가 둘이면 NBB 범주를 이루게 된다. 이들은 지정어와 함께 NP 범주를 이루게 된다.

대명사나 고유 명사나 수사는 사건 구조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NP 범주로 상정하였다. 의존 명사에 대해서도 사건 구조를 상정할 수

없는 것이다. 사건 구조의 참여항만이 논항을 이루는 것이라면, 의존 명사는 논항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논항이라는 것이 반드시 사건 구조 참여항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격조사나 보조사 혹은 부사의 논항이 사건 구조의 참여항만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논항 문제에서 우선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통사적 출현에 대한 요구 조건이다. 의존 명사는 관형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것을 우리는 보충어로 정의한다. 거기에 사건 구조가 개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문 명사의 경우는 그 내용절이 외현적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나, 언제든 그 출현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수의적 보충어로 설정할 수 있다. 일반 명사의 논항은 대체로 그 출현이 수의적이라는 두드러진 특징을 가진다. 이는 명사구의 논항이 특수한 경우 외에는 반논항의 가치를 가지는 것임을 의미 한다.

명사구의 부가어는 관형사 부가어와 관형사절 부가어의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관형사나 관형사절(즉 관형사형 전성 어미구)이 어느 경우에나 부가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의존 명사나 보문 명사에 대해서는 보충어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관형사의 연결 순서는 지시사-양화사-성상사와 같은 순서가 가장 자연스러운 순서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순서임을 말한다. 이 순서는 이들 관형사가 같은 층위에 평면적으로 나열되는 존재들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관은 문장 자료 뭉치의 검토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들 부가어들이 계층적 구조를 이룬다는 것은 그 순서에 대한 직관 외에도 그 순서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예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저기 저 책’을 “저 저기 책”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주목된 것은 짧은 관형사절이 가지는 특수한 지위이다. 짧은 관형사절은 주로 논항을 갖추지 않은 형용사의 현재 관형사형 어미구만을 말하는 것으로, 그 출현 위치가 성상사가 나타나는 위치와 유사하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짧은 관형사절이 성상사적인 요소로 재분석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명사구 구성으로서는 ‘하-’나 ‘이-’를 보충하여 그 구조를 해석해야 하는 특이한 예들이 주목되었다. ‘한국에서 제일이 세계에서 제일이다’의 ‘한국에서 제일이’는 지정 형용사 ‘이-’를 보충하여 해석되는 구조를

보이는 것이고, ‘물리학을 연구 중’은 ‘하-’를 보충하여 해석되는 구조이다. 그러나 그 구성이 완전히 용언 구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상으로 명사구와 조사구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성을 중심으로 그 범주와 구조의 문제를 다루어 왔다. 이 외에도 여기서 미처 다루지 못한 예들이 있을 수 있다.⁶²⁾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62) 이현우(1996)에서 ‘유사 명사구’로 다룬 ‘나 같으면 가겠다,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예는 여기서 다루지 않았다. 다소 특수한 기능이 인정될 수 있으나, ‘나 같았으면 가겠다, 너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와 같은 시제 구성이 가능하다. 그 의미 기능도 다르지 않다. 아직은 용언의 활용형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동주(1999)에서는 ‘-었-’이 결합하지 않은 ‘라면/이라면’을 ‘특수 조사’로 보고 있다. 이 경우는 ‘이었다면’의 성립이 문제되고 다시 그것과 ‘이라면’의 구별이 불투명해지는 문제가 있다.

참고문헌

- 간행위원회 편(1995), 「한일 어학 논총 : 남학 이종철선생 회갑기념논총」, 국학자료원.
- 강명윤(1996), 「현대 언어학 이론에 기초한 국어 통사론 연구」, 『서강어문』 12, 3-24.
- 김광해(1983), 「계사론」, 『난대 이옹백박사 회갑기념논문집』, 보진재.
- 김기혁(1990), 「관형 구성의 통어 현상과 의미 관계」, 『한글』 209, 59-97.
- 김승렬(1988), 『국어 어순 연구』, 한신문화사.
- 김양순[Kim, Y.-S.] (1988), *Licensing Principles and Phrase Structure*, Hanshin Publishing Co.
- 김용하(1990), 「국어 명사구의 구조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신·이정민·강범모·남승호(1999), 「한국어 피동 동사의 의미 구조와 논항 실현」, 1999년도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 김창섭(1981), 「현대 국어의 복합동사 연구」, 『국어연구』 47, 국어연구회.
- 김창섭(1997), 「‘하다’ 동사 형성의 몇 문제」, 『관아어문연구』 22, 246-267,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남윤진(1997), 「현대 국어의 조사에 대한 계량 언어학적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마[野間秀樹](1997), 「朝鮮語と日本語の連體修飾節(冠形節)構造」, 東京大學文學部朝鮮文化研究室紀要 第4號, 100-128.
- 노용균(1997), 「한국어 동사와 명사 사이의 하위 범주화에 있어서의 평행성」, 『언어와 정보』 1, 27-65.
- 민현식(1982), 「현대 국어의 격에 관한 연구 : 무표격의 정립을 위하여」, 『국어연구』 49, 국어연구회.
- 박갑용[Park, K.] (1992), "Light Verb Constructions in Korean and Japanes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박병수(1982), 「한국어 X'-통사론 시론」, 『언어연구』 3, 경희대.
- 박승혁(1998), 「제4장 최소주의 문법론의 구구조 이론」, 양동휘 외 5인 (1998), 73-127.
- 박정섭(1992), 「중주어와 중목적어」, 『생성문법연구』 2:2, 생성문법연구회, 293-333.
- 백응진[Baek Eung-Jin] ed. (1988), *Papers from the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and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 Toronto.
- 서정목(1998), 『문법의 모델과 핵 계층 이론』, 태학사.
- 서정수(1975),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 서태룡 외 5인 공편(1998),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 안희돈(1997), 「영어의 명사구와 일치소」, 『생성문법연구』 7 : 1, 49-66, 생성문법 연구회.
- 안희돈[Ahn, H.-D.] (1988), "Preliminary Remarks on Korean NP," 백웅진 편(1988), 1-15.
- 안희돈[Ahn, H.-D.] (1991), *Light Verbs, VP-Movement and Clausal Architecture in Korean and English*,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안희돈[Ahn, H.-D.] · 윤항진[Yoon, H.-J.] (1989), "Functional Categories in Korean," in S. Kuno *et al.* eds (1989), 79-88.
- 양동휘 외 5인(1998), 『최소주의 이론』, 한신문화사.
- 양인석[Yang, I.-S] (1972), *Korean Syntax : Case 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백합출판사.
- 유동석(1993), 「국어의 매개 변인 문법」,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동석 (1995) 재록.
- 유동석(1995), 『국어의 매개 변인 문법』, 신구문화사.
- 윤종열[Yoon, Jong-Yurl] (1989), "On the Multiple 'ka' and 'lul' Constructions in Korean," in S. Kuno *et al.* eds (1989),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3, 383-394, Dept. of Linguistics, Harvard University.
- 윤종열[Yoon, Jong-Yurl] (1990), *Korean Syntax and Generalized X-bar Theory*, Hanshin Publishing Co.
- 윤종열[Yoon, Jong-Yurl] (1992), "Functional Categories in Korean Clausal and Nominal Structures," 『생성문법연구』 2 : 2, 427-464, 생성문법연구회.
- 윤종열[Yoon, Jong-Yurl] (1999), 「확대투사자질과 명사구 그리고 절」, 『오늘의 문법, 우리를 어디로 : 이홍배 교수 회갑기념논총』, 한신문화사, 463-479.
- 이광호(1988), 『국어 격조사 ‘을/를’의 연구』, 탑출판사.
- 이광호(1997), 「후기 중세 한국어의 명사구 수식에 대한 연구」, 『朝鮮學報』 162, 1-14, 일본 조선학회.
- 이선우[Lee, S.-W.] (1983), *Syntax of Some Nominal Constructions in Korean*, Hanshin Publishing Company
- 이정민(1974),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범

한서적.

- 이현우(1995), 「현대 국어의 명사구의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홍배교수 화갑기념논총 발간위원회 편(1999), 『오늘의 문법, 우리를 어디로』, 한신문화사.
- 이홍식(1998), 「문장 성분」, 서태룡 외 5인 공편(1998), 7-46.
- 임동훈(1991), 「격조사는 핵인가」, 『주시경학보』 8, 119-130, 탑출판사.
- 임영재[Yim, Y.-J.] (1985), *Case Tropism : The Nature of Phrasal and Clausal Case*, 한신문화사.
- 임홍빈(1979), 「용언의 어근 분리 현상에 대하여」, 『언어』 4 : 2, 55-76.
- 임홍빈(1984), 「문종결의 논리와 수행-억양」, 『말』 9, 147-184, 연세대 한국어학당.
- 임홍빈(1987가), 「국어의 재귀사 연구」, 신구문화사.
- 임홍빈(1987나), 「국어의 명사구 확장 규칙에 대하여」, 『국어학』 16, 국어학회, 379-430.
- 임홍빈(1989), 「통사적 파생에 대하여」, 『어학연구』 25 : 1, 167-196.
- 임홍빈(1995), 「결정사구 가설의 문제점」, 간행위원회 편(1995), 226-290.
- 임홍빈(1996), 「양화 표현과 성분 주제」, 『이기문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660-703, 신구문화사.
- 임홍빈(1997), 「국어 굴절의 원리적 성격과 재구조화」, 『관악어문연구』 22, 93-163.
- 임홍빈(1999), 「국어의 여·대격 구성에 대하여」, 논총발간위원회 편, 이홍배교수 화갑기념논총, 577-623.
-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 문법론』 1, 한국방송통신대학.
- 장석진(1993), 『정보 기반 한국어 문법』, 도서출판 언어와 정보.
- 장영준(1998), 「On the Structure of NP」, 한국언어학회 가을연구회 발표 논문.
- [참고] 윤종열(1999) 참조.
- 정[Chung, S.-H.] (1985), "An X'-Syntactic Analysis of Noun Phrase in English and Korean,"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희정(1997), 「국어 명사의 연구 : 의미에 따른 통사적 특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채 완(1993), 「특수조사 목록의 재검토」, 『국어학』 23, 69-92, 국어학회.
- 채 완(1995), 「한국어 특수 조사 연구의 한 반성」, 『朝鮮學報』 153, 1-23, 일본 조선학회.
- 채영숙·김재원·김민정·김지영(1991), 『한국어 조사 유형 사례집』, 부산대학교 자연대 전자계산학과 인공지능연구실 PNU AI TR91-1.
- 채희락[Chae, H.-R.] (1997), "Verbal Nouns and Light Verbs in Korean",

- 『어학연구』 33 : 4, 581-600,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최규수(1994), 「토씨구의 설정에 대하여」, 『우리말연구』 4, 91-107, 우리말연구회.
- 최기용(1996), 「의미역 배정과 관련된 명사의 성격에 대하여」, 『생성문법연구』 6 : 1, 85-119, 한국생성문법학회.
- 최기용[Choi, K.-Y.] (1993), *A Theory of Syntactic X^0 -subcategorization*, Thaeahksa.
- 최동주(1977), 「현대 국어의 특수 조사에 대한 통사적 고찰」, 1 : 1, 43-60, 도서출판 박이정.
- 최동주(1999), 「‘이’계 특수 조사의 문법화」, 『형태론』 1 : 1, 43-60, 도서출판 박이정.
- 최형용(1997), 「형식명사·보조사·접미사의 상관 관계」, 『국어연구』 148, 국어연구회.
- 한재현(1983), 「한국어 통사 범주의 일반화」, 『언어』 8 : 1, 49-69, 한국언어학회.
- 홍용철(1994), 「융합 이론과 격조사 분포」, 『생성문법연구』 4 : 1, 1-43, 한국언어학회 생성문법연구회.
- 홍윤표(1984), 「현대 국어의 후치사 ‘가지고’」, 『동양학』 14, 난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Abney, S. P. (1987), "The English Noun Phrase in its Sentential Aspect," Ph. D. dissertation, MIT.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The MIT Press.
- Chomsky, N. (1976), "Conditions on Rules of Grammar," *Linguistic Analysis* 2, 303-351.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Publications.
- Chomsky, N. (1986가),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 Chomsky, N. (1986나), *Barriers*, The MIT Press.
- Chomsky, N. (1988),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MIT Working Papers* 10, MIT.
- Chomsky, N.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K. Hale and J. Keyser eds (1993), 1-52.
- Chomsky, N. (1994), "Bare Phrase Structur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5.
- Chomsky, N. (1995), *Minimalist Program*, The MIT Press.
- Chung, S.-H. (1985), "An X'-Syntactic Analysis of Noun Phrase in

- English and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 Fukui, N. (1986), "A Theory of Category Projection and Its Applications," Ph. D. dissertation, MIT.
- Fukui, N. and M. Speas (1986), "Specifiers and Projection,"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8, 128-172, MIT.
- Grimshaw, J. (1990),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 The MIT Press.
- Gunji, T. (1987), *Japanese Phrase Structure Grammar : A Unification-Based Approach*, Dordrecht : D. Reidel Publishing Company.
- Hale, K. and Keyser J. eds (1993), *The View from Building 20 : Essays in Linguistics in Honor of Sylvain Bromberger*, The MIT Press.
- Jackendoff, R. (1977), *X'-Syntax : A Study of Phrase Structure*, The MIT Press.
- Jackendoff, R. (1990), "On Larson's Treatment of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21 : 3, 427-456.
- Kendal, S. A. and J. H. Yoon (1986), "Morphosyntactic Interaction with Pragmatics and Sentence Ending," *CLS* 22 Part 2, 54-66.
- Kuno, S. et al. eds (1989),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3, Harvard University.
- Larson, R. K. (198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19 : 3, 335-391.
- Larson, R. K. (1990), "Double Objects Revisited : Reply to Jackendoff," *Linguistic Inquiry* 21 : 4, 589-632.
- Pullum, G. K. (1985), "Assuming Some Version of X-bar Theory," *CLS* 21 : 323-353.
- Pustejovsky, J. (1995),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 The MIT Press.
- Radford, A. (1981), *Transformational Syntax : A Student's Guide to Chomsky's Extended Standard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서정목·이광호·임홍빈 역(1984), 변형 문법이란 무엇인가, 을유문화사).
- Radford, A. (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 A First Course*, Cambridge University Press(서정목·이광호·임홍빈 역(1990), 변형 문법, 을유문화사).
- Saito, M. (1985), "Some Asymmetries in Japanese and Their Theoretical Implications," Doctoral dissertation, MIT.
- Stowell, T. (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MIT (이기용·나병모 편역(1988), 구구조의 생성, 한신문화사).